2017년 상반기 | Vol. 0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Quarterly Crime Trend Report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검찰
PROSECUTION SERVICE

일러두기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수'와 '인원수'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수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인원수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란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 별도의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며,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범죄자 특성(범죄자의 성, 연령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별로 집계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피의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만 집계하였다.

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간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년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년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전년 동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지난 보고서와 달리 전년 동분기와의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계절성의 추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분기와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범죄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4분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료 해석에 있어 계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2017년 1분기와 2분기)는 잠정치로서 추후 수정될 수 있다.

주) 이 보고서의 일러두기와 용어설명은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의 일러두기와 용어설명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용어설명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범죄를 집계한 것
교통범죄	형법상 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위반을 집계한 것
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중 도주차량과 위험운전치사상, 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을 집계한 것
고령범죄자	만65세 이상의 범죄자
고령범죄자 비율	[고령범죄자/(전체범죄자-연령 미상)]×100
살인미수 등 범죄	살인의 미수와 예비, 음모, 방조죄 포함
성폭력범죄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이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강간 등에 해당되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
소년범죄자	만14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범죄소년을 의미. 촉법소년은 제외됨
소년범죄자 비율	[소년범죄자/(전체범죄자-연령 미상)]×100
아동피해자	만13세 미만 피해자를 의미
아동피해자 비율	[아동피해자/(전체피해자-연령 미상)]×100
여성범죄자 비율	[여성범죄자/(전체범죄자-성별 미상)]×100
여성피해자 비율	[여성피해자/(전체피해자-성별 미상)]×100
전과자	검거된 피의자 중에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 따라서 검거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전과자비율	[전과자/(전체범죄자-전과 미상)]×100
전체범죄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
재산범죄	형법상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각 해당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폭력범죄	형법상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해당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목차

총론 ····· 8

I 범죄의 발생동향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가. 전체범죄 ····· 12
나. 강력범죄 ····· 13
다. 폭력범죄 ····· 14
라. 재산범죄 ····· 15
마. 교통범죄 ····· 15
바. 주요 범죄군별 비교 ····· 16

2.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살인범죄 ····· 17
나. 강도범죄 ····· 20
다. 방화범죄 ····· 23
라. 성폭력범죄 ····· 24
마.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 27

3.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28
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30

4.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31
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33

5.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34
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35

II 범죄자 특성별 동향

1. 여성범죄자
가. 전체범죄 ····· 36
나. 주요 범죄군 ····· 37

2. 소년범죄자
가. 전체범죄 ····· 40
나. 주요 범죄군 ····· 41

3. 고령범죄자
가. 전체범죄 ····· 44
나. 주요 범죄군 ····· 45

4. 전과자
가. 전체범죄 ····· 48
나. 주요 범죄군 ····· 49

III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1. 여성피해자
가. 전체범죄 ····· 52
나. 주요 범죄군 ····· 53

2. 아동피해자
가. 전체범죄 ····· 56
나. 주요 범죄군 ····· 57

목차

표목차

[표 I-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발생건수 ····· 12
[표 I-2] 살인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8
[표 I-3] 강도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21
[표 I-4] 방화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23
[표 I-5] 성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24
[표 I-6] 강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27
[표 I-7] 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29
[표 I-8] 재산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32
[표 I-9] 교통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34
[표 II-1] 분기별 여성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 36
[표 II-2] 분기별 소년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 40
[표 II-3]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 44
[표 II-4] 분기별 전과자 인원수 및 비율 ····· 48
[표 III-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 52
[표 III-2]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 56

그림목차

[그림 I-1] 전체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3
[그림 I-2] 강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3
[그림 I-3] 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4
[그림 I-4] 재산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5
[그림 I-5] 교통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6
[그림 I-6]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발생건수 ····· 17
[그림 I-7] 살인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 19
[그림 I-8] 존속살해와 영아살해의 분기별 발생건수 ····· 20
[그림 I-9] 강도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 21
[그림 I-10] 강도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 22
[그림 I-11] 방화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 23
[그림 I-12] 성폭력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 25
[그림 I-13] 성폭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 25
[그림 I-14] 강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 28
[그림 I-15] 폭력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 30
[그림 I-16] 폭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 31
[그림 I-17] 재산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 32
[그림 I-18] 재산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 33
[그림 I-19] 교통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 35
[그림 II-1] 전체범죄 분기별 여성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 37
[그림 II-2]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범죄자 인원수 ····· 38
[그림 II-3]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범죄자 비율 ····· 39
[그림 II-4] 전체범죄 분기별 소년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 41
[그림 II-5] 주요 범죄군 분기별 소년범죄자 인원수 ····· 42
[그림 II-6] 주요 범죄군 분기별 소년범죄자 비율 ····· 42
[그림 II-7] 전체범죄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 45
[그림 II-8] 주요 범죄군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 46
[그림 II-9] 주요 범죄군 분기별 고령범죄자 비율 ····· 46
[그림 II-10] 전체범죄 분기별 전과자 인원수 및 비율 ····· 49
[그림 II-11] 주요 범죄군 분기별 전과자 인원수 ····· 49
[그림 II-12] 주요 범죄군 분기별 전과자 비율 ····· 50
[그림 III-1] 전체범죄 분기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 53
[그림 III-2]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 54
[그림 III-3]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피해자 비율 ····· 54
[그림 III-4] 전체범죄 분기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 57
[그림 III-5] 주요 범죄군 분기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 58
[그림 III-6] 주요 범죄군 분기별 아동피해자 비율 ····· 58

총 론

I. 2017년 상반기 범죄발생 동향

1. 전체범죄의 범죄발생 동향

- 2017년 1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447,266건으로 전분기 대비 10.9%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469,832건으로 5.0% 증가하였다. 범죄 발생건수는 계절성이 있어 매년 1분기에 발생건수가 가장 적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증가하는데, 2017년 상반기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 2017년 1분기와 2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는데, 감소율은 1분기에 2.3%, 2분기에 9.7%로, 2분기 감소폭이 더 크다

2.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동향

- 주요 범죄유형 중 2017년 1분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이고, 2분기는 교통범죄이며, 강력범죄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발생건수가 가장 적다.

- 범죄유형에 따라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강력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1분기와 2분기 모두 증가하였고,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재산범죄는 1분기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감소하였다.

- 강력범죄는 2017년 1분기에 6,897건, 2분기에 8,951건 발생하였는데,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6.1%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8.1% 증가하였다.
  - 2017년 1분기와 2분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강력범죄 유형은 성폭력범죄이고, 살인범죄가 가장 적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성폭력범죄는 1, 2분기 모두 발생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이 외에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했다.

- 폭력범죄는 2017년 1분기에 55,790건, 2분기에 59,340건 발생하였는데,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8.4% 감소하였다.
  - 2017년 상반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폭력범죄 유형은 폭행범죄이고,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범죄와 약취와 유인이 가장 적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공갈, 체포와 감금은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상해,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은 1, 2분기 모두 감소했다.

- 재산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30,270건, 2분기에 133,055건 발생하였는데,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0% 증가한 반면, 2분기에는 7.6% 감소하였다.
  - 2017년 상반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범죄 유형은 사기범죄이고, 장물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1분기에는 절도와 장물범죄가 감소하고, 2분기에는 횡령을 제외한 유형의 재산범죄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장물과 배임범죄의 감소폭이 크다

- 교통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30,083건, 2분기에 141,124건 발생하였는데,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1.9%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3.9% 감소하였다.
  - 2017년 1분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교통범죄 유형은 교통사고범죄이고, 2분기에는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더 많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교통사고범죄와 기타 교통범죄 모두 1, 2분기 감소했는데, 특히 기타 교통범죄의 감소율이 높다.

II. 범죄자 특성별 범죄발생 동향

- 여성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 85,884명, 2분기에 91,078명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9.9%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18% 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여성범죄자 수는 재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으나,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순으로 높으며, 강력범죄가 가장 낮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범죄자 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뚜렷이 증가하였고, 교통범죄 여성범죄자 수는 감소하였다.

- 소년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 17,415명, 2분기에 17,883명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7.1%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9.1% 감소하였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3% 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소년범죄자 수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으나,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 비율은 강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높으며, 교통범죄가 가장 낮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소년범죄자 수는 많은 수의 범죄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다만 2017년 1분기에는 강력범죄, 2분기에는 재산범죄에서만 소년범죄자 수가 감소하였다.

- 고령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 27,908명, 2분기에 31,616명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3.6%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6.4%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6% 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고령범죄자 수는 교통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으나, 범죄유형별 고령범죄자 비율은 교통범죄와 재산범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강력범죄와 폭력범죄가 낮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고령범죄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에서만 고령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감소하였다.

- 전과자 수는 2017년 1분기에 197,792명, 2분기에 216,626명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0.4%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8.8% 감소하였다.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0% 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전과자 수는 교통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으나, 범죄유형별 전과자 비율은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의 순으로 높고, 강력범죄가 가장 낮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1분기에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전과자 수가 증가한 반면, 2분기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수만 소폭 증가하였다.

III. 피해자 유형별 동향

-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 102,433건, 2분기에 107,320건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2%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7.2% 감소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은 30% 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재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의 순으로 많으나,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의 순이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1분기에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강력범죄의 경우만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증가하였다.

-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 2,476건, 2분기에 3,739건으로,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1.0% 감소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 중 아동피해자 비율은 약 1%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 2017년 상반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교통범죄가 가장 많고, 폭력범죄, 강력범죄, 재산범죄의 순이나, 범죄유형별 아동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가장 높고, 교통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의 순이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1, 2분기 모두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아동피해자 발생건수가 증가하였고, 강력범죄와 교통범죄의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감소하였다.

Ⅰ. 범죄의 발생동향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가. 전체범죄

● 2017년 1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10.9% 감소, 2분기에는 5.0% 증가

-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같은 추세는 2017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나, 증감폭이 이전 두 해에 비하여 감소
- 2017년 1분기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447,266건으로 전분기의 502,082건에 비해 10.9% 감소. 다만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13.0%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낮아짐
- 2017년 2분기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469,832건으로 1분기에 비하여 5.0%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14.9%, 2016년 13.7%인데 비하여,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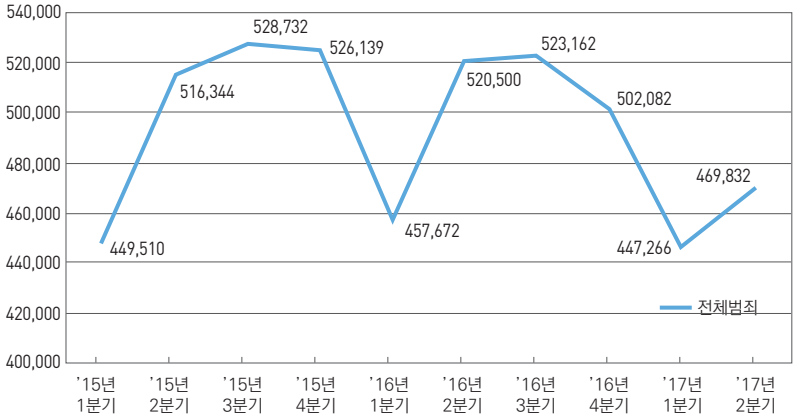
[표 Ⅰ-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2015년	연간	2,020,725	35,139	248,707	622,126	597,473
	1분기	449,510	6,148	51,157	139,690	135,472
	2분기	516,344	9,972	63,421	160,266	148,620
	3분기	528,732	10,258	67,342	158,665	151,984
	4분기	526,139	8,761	66,787	163,505	161,397
2016년	연간	2,003,416	32,919	251,814	572,153	598,587
	1분기	457,672	6,501	56,209	128,999	147,575
	2분기	520,500	8,279	64,801	144,031	163,894
	3분기	523,162	9,258	66,718	146,231	148,804
	4분기	502,082	8,881	64,086	152,892	138,314
2017년	1분기	447,266	6,897	55,790	130,270	130,083
	전분기 대비 증감률	-10.9%	-22.3%	-12.9%	-14.8%	-6.0%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2.3%	6.1%	-0.7%	1.0%	-11.9%
	2분기	469,832	8,951	59,340	133,055	141,124
	전분기 대비 증감률	5.0%	29.8%	6.4%	2.1%	8.5%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9.7%	8.1%	-8.4%	-7.6%	-13.9%

주 :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Ⅰ-1] 전체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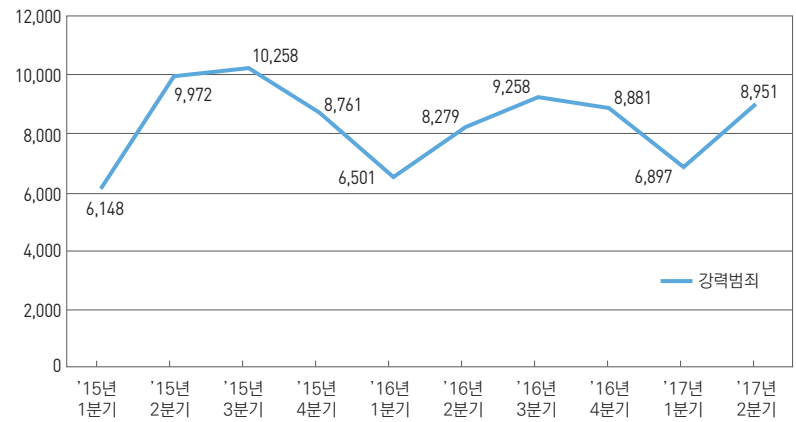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2.3% 감소, 2분기는 9.7% 감소
  - 2017년 1분기와 2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2분기는 더 큰 폭으로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447,266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457,672건에 비해 2.3% 감소하였고, 2분기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469,832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520,500건에 비해 9.7% 감소

나. 강력범죄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22.3% 감소, 2분기에는 29.8% 증가
  -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15-2016년과 유사하게 1분기에는 감소하고, 2분기에는 증가. 다만 1분기 감소율은 이전 두 해와 비교할 때 낮아졌고, 2분기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하여 낮아졌으나, 2016년에 비해서는 높아짐
  - 2017년 1분기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6,897건

[그림 Ⅰ-2] 강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으로 전분기의 8,881건에 비해 22.3% 감소. 다만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25.8%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낮아짐

- 2017년 2분기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8,951건으로 1분기에 비해 29.8% 증가. 다만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62.2%, 2016년 27.3%인데 비하여, 2017년 2분기에는 2015년 증가율보다는 감소하고 2016년 증가율보다는 증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6.1% 증가, 2분기에는 8.1% 증가

- 2017년 1분기와 2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2분기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음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6,897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6,501건에 비해 6.1% 증가하였고, 2분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8,951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8,279건에 비해 8.1% 증가

다. 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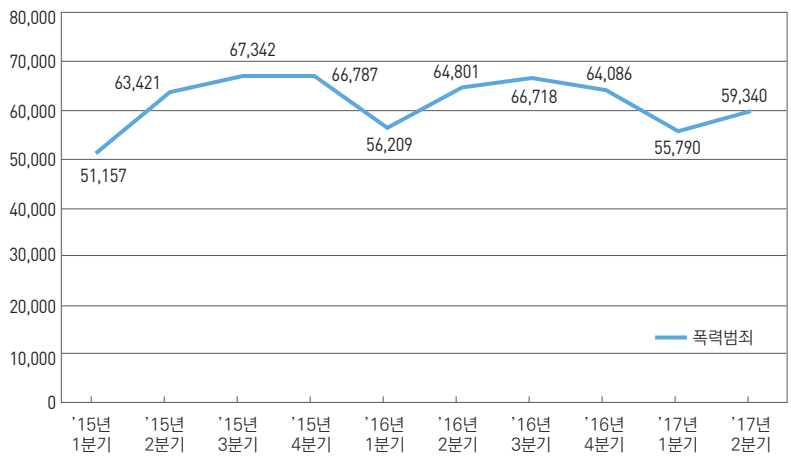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12.9% 감소, 2분기에는 6.4% 증가

-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5-2016년과 유사하게 1분기에는 감소하고, 2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이전 두 해와 비교할 때 증감률이 낮음
- 2017년 1분기의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55,790건으로 전분기의 64,086건에 비해 12.9% 감소
- 2017년 2분기의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59,340건으로 1분기에 비해 6.4%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24.0%, 2016년 15.3%인데 비하여,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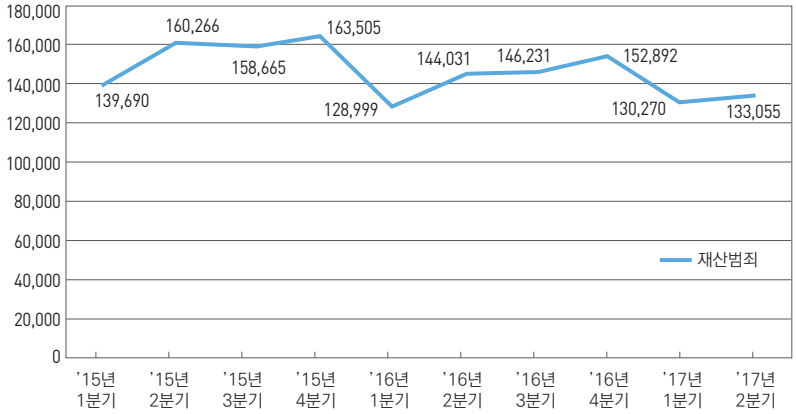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 2분기에는 8.4% 감소

- 2017년 1분기와 2분기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2분기 더 큰 폭으로 감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55,790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56,209건에 비해 0.7% 감소하

[그림 I-3] 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그림 Ⅰ-4] 재산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였고, 2분기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59,340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64,801건에 비해 8.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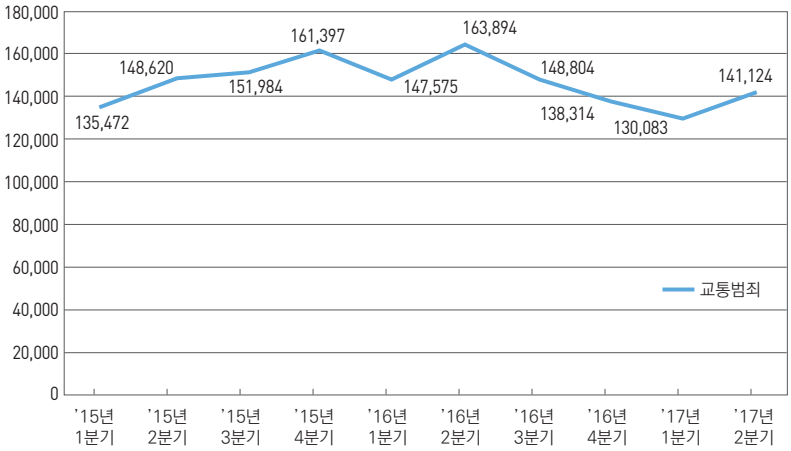
라. 재산범죄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14.8% 감소, 2분기에는 2.1% 증가
  -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2015-2016년과 유사하게 1분기에는 감소하고, 2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이전 두 해와 비교할 때 증감률이 낮음
  - 2017년 1분기의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130,270건으로 전분기의 152,892건에 비해 14.8% 감소.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21.1%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낮아짐
  - 2017년 2분기의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133,055건으로 1분기에 비해 2.1%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재산범죄 발생건수 증가율이 2015년 14.7%, 2016년 11.7%인 것과 비교할 때,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0% 증가, 2분기에는 7.6% 감소
  -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분기의 경우에는 감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130,270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128,999건에 비해 1.0% 증가하였고, 2분기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133,055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144,031건에 비해 7.6% 감소

마. 교통범죄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6.0% 감소, 2분기에는 8.5% 증가
  -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2015-2016년과 유사하게 1분기에는 감소하고, 2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이전 두 해와 비교할 때 증감률이 낮음
  - 2017년 1분기의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130,083건으로 전분기의 138,314건에 비해 6.0% 감소.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8.6%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낮아짐

[그림 I-5] 교통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2017년 2분기의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141,124건으로 1분기에 비해 8.5% 증가. 다만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9.7%, 2016년 11.1%인데 비하여,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1.9% 감소, 2분기에는 13.9% 감소
- 2017년 1분기와 2분기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130,083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147,575건에 비해 11.9% 감소하였고, 2분기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141,124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163,894건에 비해 13.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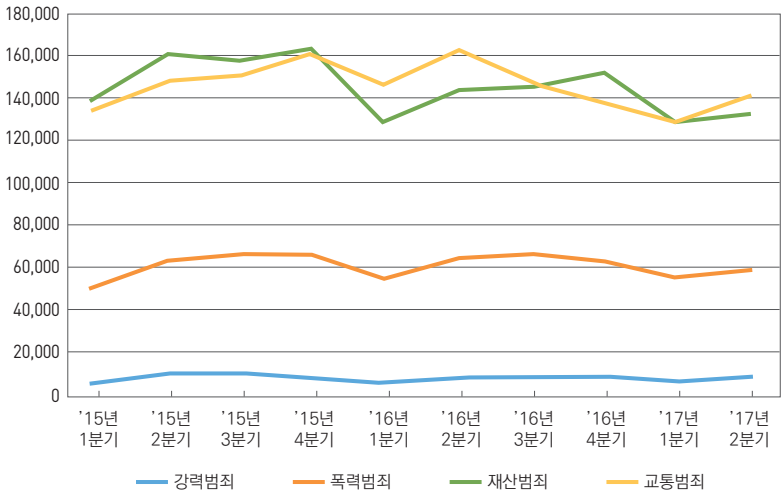
바. 주요 범죄군별 비교

1) 주요 범죄군의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1분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이고, 2분기는 교통범죄이며, 강력범죄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 주요 범죄유형 중 2017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재산범죄로 130,270건이고,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가 130,083건, 폭력범죄가 55,790건 발생함. 강력범죄는 6,897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 주요 범죄유형 중 2017년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교통범죄로 141,124건이고, 그 다음으로 재산범죄가 133,055건, 폭력범죄가 59,340건 발생함. 강력범죄는 8,951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발생건수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 2분기에는 모두 증가
- 2017년 1분기에는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모두 전분기 대비 발생건수가 감소하였는데, 강력범죄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교통범죄가 가장 낮음. 전분기 대비 강력범죄는 22.3%, 재산범죄는 14.8%, 폭력범죄는 12.9%, 교통범죄는 6.0% 감소
- 2017년 2분기에는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모두 전분기 대비 발생건수가 증가하였는데,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재산범죄가 가

[그림 Ⅰ-6]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장 낮음. 전분기 대비 강력범죄는 29.8%, 교통범죄는 8.5%, 폭력범죄는 6.4%, 재산범죄는 2.1% 증가

2) 주요 범죄군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교통범죄의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대체로 감소하는 가운데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 2분기 모두 증가
-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그 외 주요범죄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교통범죄의 감소율이 높음
- 강력범죄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증가하였고,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감소
- 재산범죄는 1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감소

● 2017년 상반기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은 범죄유형별로 상이
- 2017년 1분기에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6.1%와 1.0%증가하였고,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0.7%와 11.9% 감소
- 2017년도 2분기에 강력범죄가 전년 동분기 대비 8.1%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는 각각 8.4%, 7.6%, 13.9% 감소

2.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살인범죄

1) 전체 살인범죄

● 2017년 1분기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2.3% 감소, 2분기에도 2.3% 감소
- 살인범죄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1분기 대비 2분기 발생건수가 뚜렷이 증가했으나, 2017년 2분기에는 오히려 소폭 감소
- 2017년 1분기의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216건으로

[표 I-2] 살인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p)

구 분		살인(계)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존속살해	영아살해
2015년	연간	958	359(37.5)	599(62.5)	55	16
	1분기	212	84(39.6)	128(60.4)	16	4
	2분기	272	98(36.0)	174(64.0)	18	3
	3분기	253	86(34.0)	167(66.0)	13	4
	4분기	221	91(41.2)	130(58.8)	8	5
2016년	연간	949	342(36.0)	607(64.0)	55	8
	1분기	217	84(38.7)	133(61.3)	11	2
	2분기	253	83(32.8)	170(67.2)	13	0
	3분기	258	88(34.1)	170(65.9)	17	4
	4분기	221	87(39.4)	134(60.6)	14	2
2017년	1분기	216	71(32.9)	145(67.1)	19	3
	전분기 대비 증감률	-2.3%	-18.4%(-6.5%p)	8.2%(6.5%p)	35.7%	50.0%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0.5%	-15.5%(-5.8%p)	9.0%(5.8%p)	72.7%	50.0%
	2분기	211	68(32.2)	143(67.8)	12	1
	전분기 대비 증감률	-2.3%	-4.2%(-0.6%p)	-1.4%(0.6%p)	-36.8%	-66.7%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6.6%	-18.1%(-0.6%p)	-15.9%(0.6%p)	-7.7%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전분기의 221건에 비해 5건 감소(2.3%).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1.8%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증가

- 2017년 2분기의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211건으로 1분기에 비해 2.3% 감소하였는데, 2015년과 2016년 모두 1분기에 비하여 2분기에 발생건수가 28.3%와 16.6%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

● 2017년 1분기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0.5% 감소, 2분기에는 1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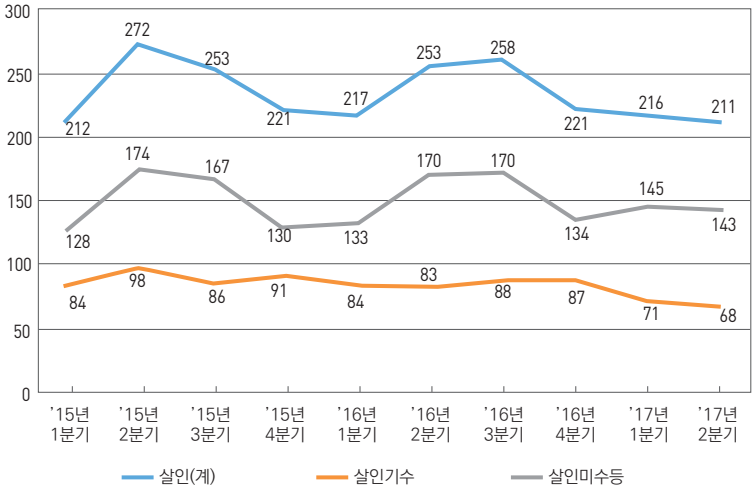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와 2분기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2분기에 더 큰 폭으로 감소
- 2017년 1분기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216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217건에 비해 1건 감소하였고(0.5%), 2분기 발생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253건에 비해 16.6% 감소

2) 살인기수와 살인미수 등

● 살인기수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살인미수 등 범죄 발생건수는 1분기에는 증가하고, 2분기에만 감소

- 살인기수 범죄는 2017년 1분기 71건 발생하여 전분기 87건 대비 18.4%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8건으로 1분기 대비 4.2% 감소

[그림 Ⅰ-7] 살인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살인미수 등 범죄는[1] 2017년 1분기 145건 발생하여 전분기 134건에 비해 8.2%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143건으로 1분기 대비 1.4% 감소
- 1분기 대비 2분기 살인기수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에는 16.7%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1.2%, 2017년에는 4.2% 감소. 살인미수 등 범죄는 2015년 35.9%, 2016년 27.8%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1.4% 감소. 따라서 이전 두 해와 비교할 때 2017년에는 살인기수와 미수 모두 감소현상이 두드러짐
- 2017년 2분기 살인기수 범죄 구성비는 32.2%로 전분기 대비 0.6%p 감소. 살인미수 등 범죄 구성비는 67.8%로 전분기 대비 0.6%p 증가

● 살인기수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살인미수 등 범죄는 1분기에는 증가한 반면, 2분기에만 감소

- 살인기수 범죄는 2017년 1분기 7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84건 대비 15.5%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8건으로 전년 동분기 83건 대비 18.1% 감소
- 살인미수 등 범죄는 2017년 1분기 145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33건 대비 9.0%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43건으로 전년 동분기 170건 대비 15.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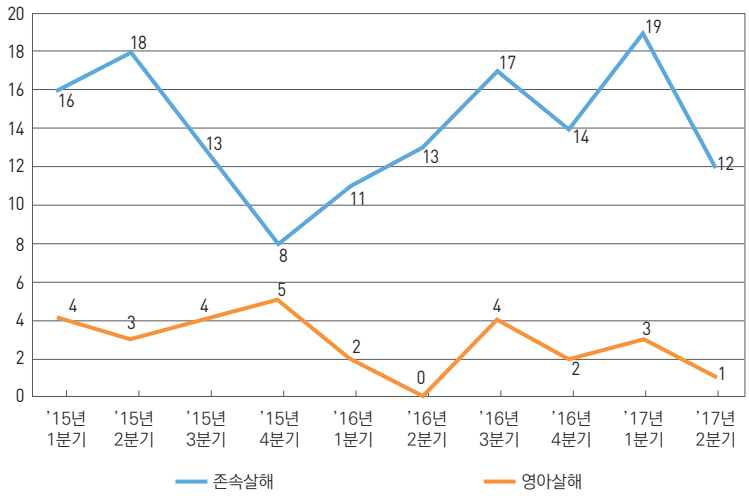
3)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

●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감소

- 존속살해죄는 2017년 1분기 19건 발생하여 전분기 14건 대비 35.7%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2건으로 1분기 대비 36.8% 감소
- 영아살해죄는 2017년 1분기 3건 발생하여 전분기 2건 대비 1건 증가하였고(50.0%), 2분기에는 1건으로 1분기 대비 2건 감소(66.7%)
- 존속살해죄의 경우 2015-2016년 1분기 대비 2

1) 살인미수 등 범죄는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을 의미

[그림 I-8] 존속살해와 영아살해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분기 발생건수가 증가하였으나(각 2건씩 증가), 2017년에는 오히려 크게 감소. 영아살해죄는 2015-2017년 세 해 모두 감소

● 존속살해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2분기에는 감소하였고, 영아살해죄 발생건수는 1, 2분기 모두 증가
- 존속살해죄는 2017년 1분기 19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1건 대비 8건 증가하였고(72.7%), 2분기에는 12건으로 전년 동분기 13건 대비 1건 감소(7.7%)
- 영아살해죄는 2017년 1분기 3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2건 대비 1건 증가하였고(50.0%), 2분기에는 1건 발생하였는데 전년 동분기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나. 강도범죄

1) 전체 강도범죄

● 2017년 1분기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12.1% 감소, 2분기에는 5.3% 증가
- 강도범죄는 2015년 2-3분기에 소폭 증가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2017년 1-2분기에만 소폭 증가
- 2017년 1분기의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247건으로 전분기의 281건에 비해 12.1% 감소.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7.2%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증가
- 2017년 2분기의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260건으로 1분기에 비해 5.3% 증가. 2015년 2분기에 1분기 대비 1.9%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6% 감소

● 2017년 1분기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20.6% 감소, 2분기에는 15.0% 감소
- 2017년 1분기와 2분기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감소
- 2017년 1분기 강도범죄 발생건수는 247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311건에 비해 20.6% 감소하였고, 2분기 발생건수는 260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306건에 비해 15.0% 감소

[표 Ⅰ-3] 강도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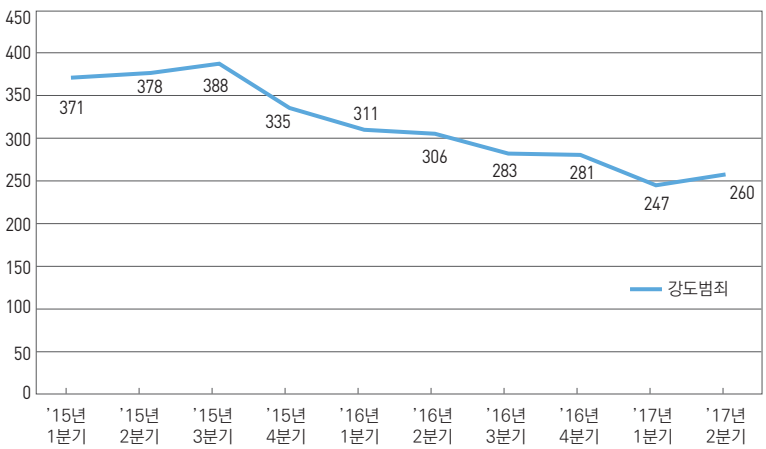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강도(계)	단순 강도	강도 상해/치상	강도 살인/치사	강도 강간
2015년	연간	1,472	923	498	30	21
	1분기	371	239	122	6	4
	2분기	378	236	127	9	6
	3분기	388	238	134	8	8
	4분기	335	210	115	7	3
2016년	연간	1,181	734	409	22	16
	1분기	311	199	104	4	4
	2분기	306	175	118	9	4
	3분기	283	173	99	6	5
	4분기	281	187	88	3	3
2017년	1분기	247	161	81	1	4
	전분기 대비 증감률	-12.1%	-13.9%	-8.0%	-66.7%	33.3%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20.6%	-19.1%	-22.1%	-75.0%	0.0%
	2분기	260	156	87	10	7
	전분기 대비 증감률	5.3%	-3.1%	7.4%	900.0%	75.0%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5.0%	-10.9%	-26.3%	11.1%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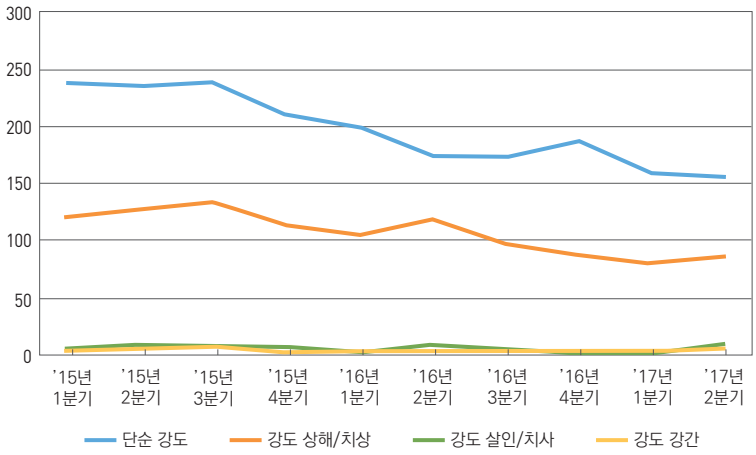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Ⅰ-9] 강도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그림 I-10] 강도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2) 단순강도범죄와 상해 등을 수반한 강도범죄

- 단순강도범죄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강도강간범죄는 1, 2분기 모두 증가하였고, 강도상해/치상과 강도살인/치사범죄는 1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증가
  - 단순강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61건 발생하여 전분기 187건 대비 13.9%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56건으로 1분기 대비 3.1% 감소
  - 강도상해/치상범죄는 2017년 1분기에 81건 발생하여 전분기 88건 대비 8.0% 감소한 반면, 2분기에는 87건으로 1분기 대비 7.4% 증가
  - 강도살인/치사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건 발생하여 전분기 3건 대비 66.7%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10건으로 1분기 대비 900.0% 증가
  - 강도강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건 발생하여 전분기 3건 대비 33.3%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7건으로 1분기 대비 75.0% 증가
  - 2017년도 2분기 단순강도범죄의 구성비는 60.0%로 강도범죄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도상해/치상범죄(33.5%), 강도살인/치사범죄(3.8%), 강도강간범죄(2.7%)의 순
- 단순강도범죄와 강도상해/치상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강도살인/치사범죄와 강도강간범죄는 2분기에만 증가
  - 단순강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6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99건 대비 19.1%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56건으로 전년 동분기 175건 대비 10.9% 감소
  - 강도상해/치상범죄는 2017년 1분기에 8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04건 대비 22.1%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87건으로 전년 동분기 118건 대비 26.3% 감소
  - 강도살인/치사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4건 대비 3건 감소하였고(75.0%), 2분기에는 10건으로 전년 동분기 9건 대비 1건 증가(11.1%)
  - 강도강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4건과 동일하며, 2분기에는 7건으로 전년 동분기 4건 대비 3건 증가(75.0%)

다. 방화범죄

- 2017년 1분기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 2분기에는 7.4% 감소
  - 방화범죄는 2016년 1분기에서 3분기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4분기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 2분기에 다시 감소
  - 2017년 1분기의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377건으로 전분기의 371건에 비해 1.6% 증가. 2016년 1분기에는 2015년 4분기 대비 4.7% 감소한데 비해 2017년 1분기에는 발생건수가 증가
  - 2017년 2분기의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349건으로 1분기에 비해 7.4% 감소. 2015년 1-2분기에는 12.8% 증가하였고, 2016년 1-2분기에는 3.9% 감소하여, 일관된 추이가 관찰되지 않음

- 2017년 1분기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 감소, 2분기는 5.2% 감소
  - 2017년 1분기와 2분기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소폭 감소
  - 2017년 1분기 방화범죄 발생건수는 377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383건에 비해 1.6% 감소하였고, 2분기 발생건수는 349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368건에 비해 5.2% 감소

[표 Ⅰ-4] 방화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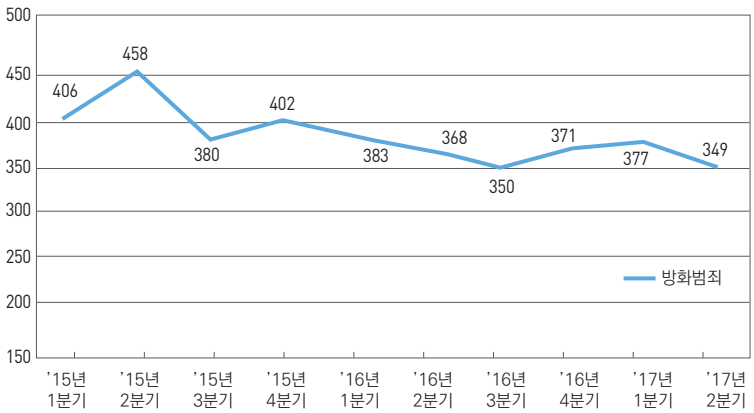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방화
'15	연간	1,646
	1분기	406
	2분기	458
	3분기	380
	4분기	402
'16	연간	1,472
	1분기	383
	2분기	368
	3분기	350
	4분기	371
'17	1분기	377
	전분기 대비 증감률	1.6%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6%
	2분기	349
	전분기 대비 증감률	-7.4%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5.2%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Ⅰ-11] 방화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라. 성폭력범죄

1) 전체 성폭력범죄

● 2017년 1분기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24.4% 감소, 2분기에는 34.2% 증가
- 성폭력범죄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2분기 이후 증가하여 3분기에 연중 최고점을 찍은 후, 4분기와 1분기에 감소하였는데, 2017년에도 1분기에 감소하고 2분기에는 증가
- 2017년 1분기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6,057건으로 전분기의 8,008건에 비해 24.4%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28.4%인 것과 유사
- 2017년 2분기의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8,131건으로 1분기에 비해 34.2%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에는 71.8%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1.5%와 34.2%로 낮아져, 증가폭이 둔화

● 2017년 1분기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8.4% 증가, 2분기는 10.6% 증가
- 2017년 1분기와 2분기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증가
- 2017년 1분기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6,057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5,590건에 비해 8.4% 증가하였고, 2분기 발생건수는 8,131건으로 전년 동분기의 7,352건에 비해 10.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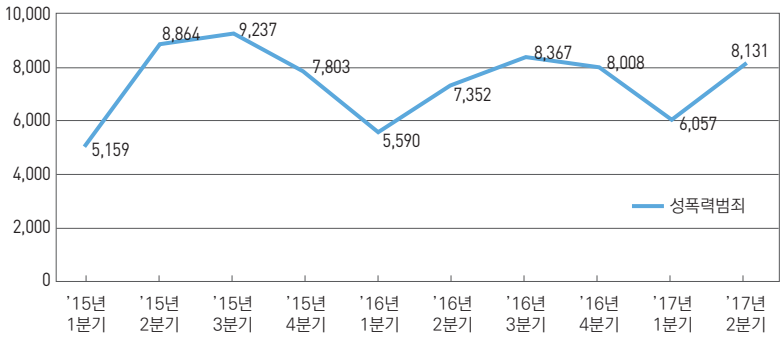
[표 I-5] 성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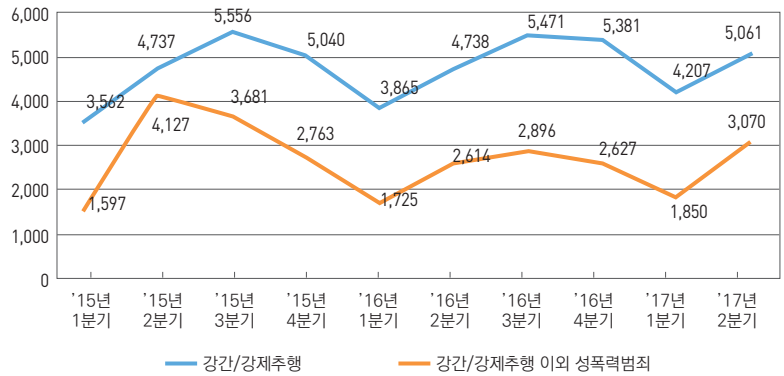
구 분		성폭력(계)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	기타 성폭력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15	연간	31,063	18,895	855	7,730	543	1,139	1,901
	1분기	5,159	3,562	173	729	104	214	377
	2분기	8,864	4,737	214	2,908	147	348	510
	3분기	9,237	5,556	265	2,440	159	273	544
	4분기	7,803	5,040	203	1,653	133	304	470
'16	연간	29,317	19,455	1,260	5,242	477	1,112	1,771
	1분기	5,590	3,865	276	738	105	275	331
	2분기	7,352	4,738	331	1,386	139	268	490
	3분기	8,367	5,471	289	1,693	120	277	517
	4분기	8,008	5,381	364	1,425	113	292	433
'17	1분기	6,057	4,207	281	868	83	232	386
	전분기 대비 증감률	-24.4%	-21.8%	-22.8%	-39.1%	-26.5%	-20.5%	-10.9%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8.4%	8.8%	1.8%	17.6%	-21.0%	-15.6%	16.6%
	2분기	8,131	5,061	279	1,783	113	312	583
	전분기 대비 증감률	34.2%	20.3%	-0.7%	105.4%	36.1%	34.5%	51.0%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0.6%	6.8%	-15.7%	28.6%	-18.7%	16.4%	19.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Ⅰ-12] 성폭력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그림 Ⅰ-13] 성폭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2) 강간/강제추행과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

●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범죄 발생건수는 1, 2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강간/강제추행범죄 발생건수는 1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증가
- 강간/강제추행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207건 발생하여, 전분기 5,381건 대비 21.8%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5,061건으로 1분기 대비 20.3% 증가
-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범죄는 2017년 1분기에 281건 발생하여, 전분기 364건 대비 22.8%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279건으로 1분기 대비 2건 감소(0.7%)
- 강간/강제추행범죄의 경우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에는 33.0%, 2016년에는 22.6%였으며, 2017년 역시 전년과 유사한 증가율을 유지.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범죄는 2015년과 2016년 1-2분기에 각각 23.7%와 19.9% 증가한 것과 달리, 2017년에는 2건 감소하여 보합추세
- 2017년 2분기 전체 성폭력범죄 중 구성비는 강간/강제추행범죄가 62.2%이고,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범죄가 3.4%임

● 강간/강제추행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범죄 발생건수는 1분기에만 소폭 증가
- 강간/강제추행은 2017년 1분기에 4,207건 발생하

여 전년 동분기 3,865건 대비 8.8%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5,061건으로 전년 동분기 4,738건 대비 6.8% 증가
-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은 2017년 1분기에 28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276건 대비 1.8% 소폭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279건으로 전년 동분기 331건대비 15.7% 감소

3) 기타 성폭력범죄

- 2017년 2분기 기타 성폭력범죄[2]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고, 성적목적 장소침입이 가장 적음
  - 2017년 2분기 기타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1,783건(전체 성폭력범죄의 21.9%)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583건, 7.2%), 통신매체 이용 음란(312건, 3.8%)의 순이며, 성적목적 장소침입범죄가 113건으로 가장 적음(1.4%)

- 기타 성폭력범죄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증가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 868건으로 전분기 1,425건 대비 39.1%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1,783건으로 1분기 대비 105.4%나 증가
  - 성적목적의 장소침입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 83건으로 전분기 113건 대비 26.5%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113건으로 1분기 대비 36.1% 증가
  -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 232건으로 전분기 292건 대비 20.5%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312건으로 1분기 대비 34.5% 증가
  -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 386건으로 전분기 433건 대비 10.9%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583건으로 1분기 대비 51.0% 증가
  - 기타 성폭력범죄는 2015년과 2016년 모두 1분기 대비 2분기에 대체로 증가하였고(예외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016년 2분기에 감소), 2017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됨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와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와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성적목적의 장소침입범죄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감소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는 2분기에만 증가
  -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2017년 1분기에 868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738건 대비 17.6%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783건으로 전년 동분기 1,386건 대비 28.6% 증가
  - 성적목적의 장소침입범죄는 2017년 1분기에 83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05건 대비 21.0% 감소, 2분기에는 113건으로 전년 동분기 139건 대비 18.7% 감소
  -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는 2017년 1분기에 232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275건 대비 15.6% 감소, 2분기에는 312건으로 전년 동분기 268건 대비 16.4% 증가
  -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죄는 2017년 1분기에 386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331건 대비 16.6% 증가, 2분기에는 583건으로 전년 동분기 490건 대비 19.0% 증가

2) 기타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 중 강간/강제추행과 강간 등 살인치사/상해치상을 제외한 이외의 성폭력범죄, 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의미

마.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1)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1분기와 2분기 발생건수가 많은 강력범죄 유형은 성폭력범죄, 방화범죄, 강도범죄의 순이며, 살인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 주요 강력범죄 유형 중 2017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성폭력범죄로 6,057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방화가 377건, 강도범죄가 247건 발생하였으며, 살인범죄는 216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 주요 강력범죄 유형 중 2017년 2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성폭력범죄로 8,131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방화가 349건, 강도범죄가 260건 발생하였으며, 살인범죄는 211건으로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살인범죄의 발생수준에 근접
- 2017년 1분기에는 방화범죄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성폭력범죄, 강도범죄가 증가. 살인범죄는 1, 2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
  - 2017년 1분기에는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짐. 성폭력범죄는 24.4%, 강도범죄는 12.1%, 살인범죄는 2.3%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방화범죄는 소폭 증가(1.6%)
  - 2017년 2분기에는 성폭력범죄의 증가현상이 특징적. 성폭력범죄는 34.2%, 강도범죄는 5.3%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방화범죄는 7.4%, 살인범죄는 2.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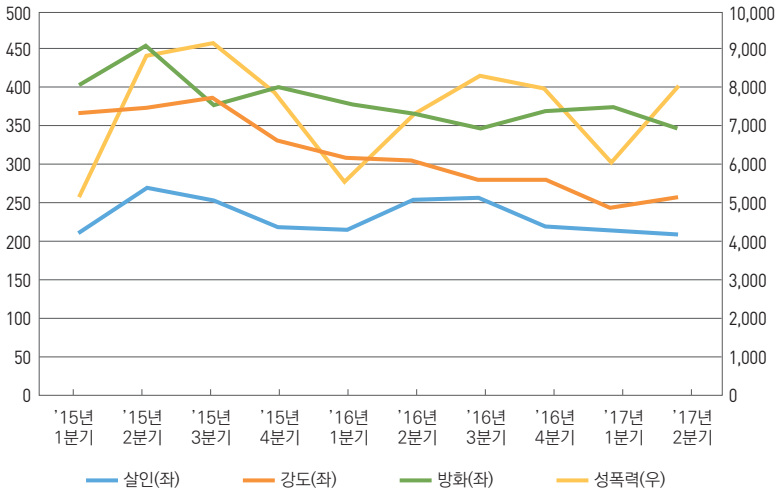
[표 Ⅰ-6] 강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구 분		강력범죄(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15	연간	35,139	958	1,472	1,646	31,063
	1분기	6,148	212	371	406	5,159
	2분기	9,972	272	378	458	8,864
	3분기	10,258	253	388	380	9,237
	4분기	8,761	221	335	402	7,803
'16	연간	32,919	949	1,181	1,472	29,317
	1분기	6,501	217	311	383	5,590
	2분기	8,279	253	306	368	7,352
	3분기	9,258	258	283	350	8,367
	4분기	8,881	221	281	371	8,008
'17	1분기	6,897	216	247	377	6,057
	전분기 대비 증감률	-22.3%	-2.3%	-12.1%	1.6%	-24.4%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6.1%	-0.5%	-20.6%	-1.6%	8.4%
	2분기	8,951	211	260	349	8,131
	전분기 대비 증감률	29.8%	-2.3%	5.3%	-7.4%	34.2%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8.1%	-16.6%	-15.0%	-5.2%	10.6%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I-14] 강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2)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성폭력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발생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이 외에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
  -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강도범죄의 감소율이 높음
  - 성폭력범죄는 전년 동분기에 비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증가하였고,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는 1분기와 2분기 모두 감소

- 2017년 상반기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은 강력범죄 유형별로 상이
  - 2017년 1분기에 성폭력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살인범죄는 0.5%, 강도범죄는 20.6%, 방화범죄는 1.6% 감소
  - 2017년도 2분기에 성폭력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10.6% 증가하였으나, 살인범죄는 16.6%, 강도범죄는 15.0%, 방화범죄는 5.2% 감소
  - 살인범죄와 강도범죄, 방화범죄가 1, 2분기 모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한 것은 강력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기인

3.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발생건수가 많은 폭력범죄 유형은 폭행, 상해, 협박, 공갈범죄 등의 순이며,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과 약취와 유인이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55,790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고, 발생건수가 많은 폭력범죄 유형은 폭행(38,450건, 68.9%), 상해(11,864건, 21.3%), 협박(3,592건, 6.4%), 공갈(1,211건, 2.2%), 체포와 감금(373건, 0.7%) 등의 순이고, 약취와 유인(35건, 0.1%)이 가장 적음

[표 Ⅰ-7] 폭력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구 분		폭력범죄 (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 (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 (단체 등의 구성, 활동)
'15	연간	248,707	161,636	62,700	14,107	5,356	195	1,383	2,207	1,123
	1분기	51,157	32,856	13,399	2,369	1,395	44	300	548	246
	2분기	63,421	40,765	16,474	3,440	1,371	55	346	646	324
	3분기	67,342	43,519	16,863	4,206	1,280	44	344	700	386
	4분기	66,787	44,496	15,964	4,092	1,310	52	393	313	167
'16	연간	251,814	172,001	55,745	16,441	4,774	204	1,576	883	190
	1분기	56,209	38,457	12,601	3,402	1,074	49	339	226	61
	2분기	64,801	44,004	14,338	4,424	1,311	51	383	220	70
	3분기	66,718	45,420	14,830	4,547	1,223	49	438	182	29
	4분기	64,086	44,120	13,976	4,068	1,166	55	416	255	30
'17	1분기	55,790	38,450	11,864	3,592	1,211	35	373	225	40
	전분기 대비 증감률	-12.9%	-12.9%	-15.1%	-11.7%	3.9%	-36.4%	-10.3%	-11.8%	33.3%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0.7%	0.0%	-5.8%	5.6%	12.8%	-28.6%	10.0%	-0.4%	-34.4%
	2분기	59,340	41,090	12,171	4,001	1,387	51	433	170	37
	전분기 대비 증감률	6.4%	6.9%	2.6%	11.4%	14.5%	45.7%	16.1%	-24.4%	-7.5%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8.4%	-6.6%	-15.1%	-9.6%	5.8%	0.0%	13.1%	-22.7%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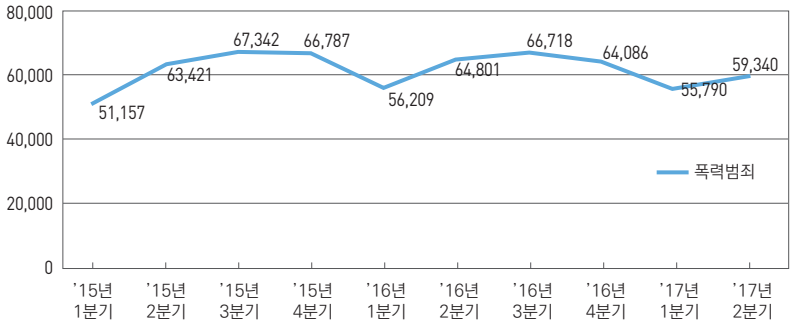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 2017년 2분기 59,340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고, 발생건수가 많은 폭력범죄 유형은 폭행(41,090건, 69.2%), 상해(12,171건, 20.5%), 협박(4,001건, 6.7%), 공갈(1,387건, 2.3%), 체포와 감금(433건, 0.7%) 등의 순이고,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37건, 0.1%)이 가장 적음

● 폭행, 상해,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은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증가한 반면,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은 1분기에는 증가, 2분기에는 감소. 또한 공갈범죄는 1, 2분기 모두 증가한 반면,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은 1, 2분기 모두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폭력범죄 유형 중에서 공갈과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은 증가
- 2017년 2분기 전체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6.4% 증가한 가운데,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과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은 감소
- 폭행범죄는 2017년 1분기에 38,450건 발생하여 전분기 44,120건 대비 12.9%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41,090건으로 1분기 대비 6.9% 증가
- 상해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1,864건 발생하여

[그림 I-15] 폭력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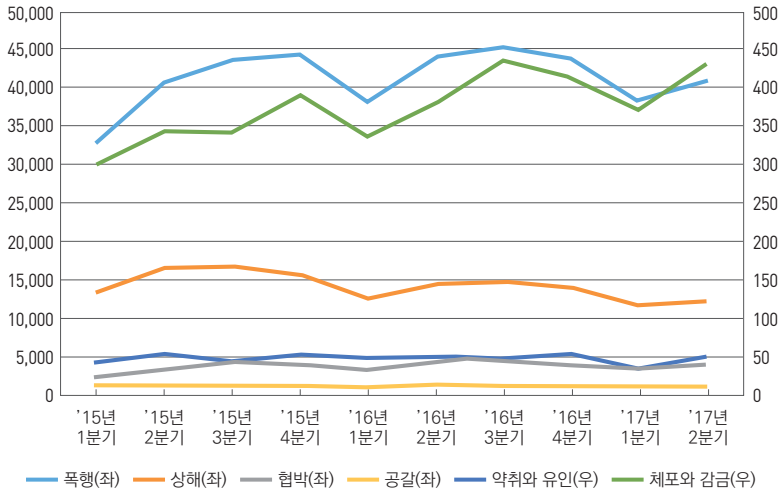
전분기 13,976건 대비 15.1%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12,171건으로 1분기 대비 2.6% 증가

- 협박범죄는 2017년 1분기에 3,592건 발생하여 전분기 4,068건 대비 11.7%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4,001건으로 1분기 대비 11.4% 증가
- 공갈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211건 발생하여 전분기 1,166건 대비 3.9%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387건으로 1분기 대비 14.5% 증가
- 약취와 유인은 2017년 1분기에 35건 발생하여 전분기 55건 대비 36.4%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51건으로 1분기 대비 45.7% 증가
- 체포와 감금은 2017년 1분기에 373건 발생하여 전분기 416건 대비 10.3%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433건으로 1분기 대비 16.1% 증가
-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범죄는 2017년 1분기에 225건 발생하여 전분기 255건 대비 11.8%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70건으로 1분기 대비 24.4% 감소
-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0건 발생하여 전분기 30건 대비 33.3%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37건으로 1분기 대비 7.5% 감소

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공갈, 체포와 감금은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상해,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은 1, 2분기 모두 감소. 또한 폭행, 협박은 2분기에만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약취와 유인은 1분기에만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0.7% 감소한 가운데, 폭력범죄 유형 중에서 협박, 공갈, 체포와 감금은 증가
  - 2017년 2분기 전체 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8.4% 감소한 가운데, 공갈, 체포와 감금은 증가. 체포와 감금의 증가폭과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의 감소폭이 큼
  - 폭행범죄는 2017년 1분기에 38,450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38,457건과 유사하나, 2분기에는 41,090건으로 전년 동분기 44,004건 대비 6.6% 감소
  - 상해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1,864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2,601건 대비 5.8%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2,171건으로 전년 동분기 14,338건 대비 15.1% 감소
  - 협박범죄는 2017년 1분기에 3,592건 발생하여 전

[그림 Ⅰ-16] 폭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년 동분기 3,402건 대비 5.6%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4,001건으로 전년 동분기 4,424건 대비 9.6% 감소

- 공갈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21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074건 대비 12.8%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387건으로 전년 동분기 1,311건 대비 5.8% 증가
- 약취와 유인은 2017년 1분기에 35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49건 대비 28.6%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51건으로 전년 동분기 51건과 동일
- 체포와 감금은 2017년 1분기에 373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339건 대비 10.0%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433건으로 전년 동분기 383건 대비 13.1% 증가
- 폭력행위 등(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범죄는 2017년 1분기에 225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226건과 유사하나, 2분기에는 170건으로 전년 동분기 220건 대비 22.7% 감소
-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0건 발생하여 전분기 61건 대비 34.4%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37건으로 전년 동분기 70건 대비 47.1% 감소

4.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발생건수가 많은 재산범죄 유형은 사기, 절도, 손괴, 횡령, 배임범죄의 순이며, 장물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130,270건의 재산범죄가 발생하였고, 발생건수가 많은 재산범죄 유형은 사기(62,006건, 47.6%), 절도(42,553건, 32.7%), 손괴(12,322건, 9.5%), 횡령(11,571건, 8.9%), 배임(1,380건, 1.1%)의 순이고, 장물(438건, 0.3%)이 가장 적음
- 2017년 2분기 133,055건의 재산범죄가 발생하였고, 발생건수가 많은 재산범죄 유형은 사기(59,170건, 44.5%), 절도(46,306건, 34.8%), 손

[표 I-8] 재산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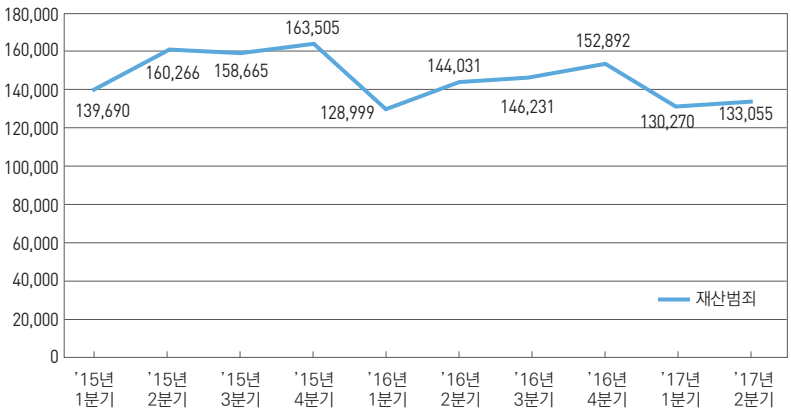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재산범죄 (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15	연간	622,126	246,424	4,263	257,620	48,795	5,843	59,181
	1분기	139,690	51,617	1,418	63,704	9,516	1,593	11,842
	2분기	160,266	64,753	1,361	66,977	11,497	1,329	14,349
	3분기	158,665	65,544	882	61,739	13,141	1,410	15,949
	4분기	163,505	64,510	602	65,200	14,641	1,511	17,041
'16	연간	572,153	202,936	2,072	250,084	52,025	5,754	59,282
	1분기	128,999	45,953	499	57,450	11,318	1,373	12,406
	2분기	144,031	50,610	682	64,358	12,344	1,608	14,429
	3분기	146,231	52,535	506	62,408	13,441	1,307	16,034
	4분기	152,892	53,838	385	65,868	14,922	1,466	16,413
'17	1분기	130,270	42,553	438	62,006	11,571	1,380	12,322
	전분기 대비 증감률	-14.8%	-21.0%	13.8%	-5.9%	-22.5%	-5.9%	-24.9%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0%	-7.4%	-12.2%	7.9%	2.2%	0.5%	-0.7%
	2분기	133,055	46,306	488	59,170	12,343	1,205	13,543
	전분기 대비 증감률	2.1%	8.8%	11.4%	-4.6%	6.7%	-12.7%	9.9%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7.6%	-8.5%	-28.4%	-8.1%	0.0%	-25.1%	-6.1%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I-17] 재산범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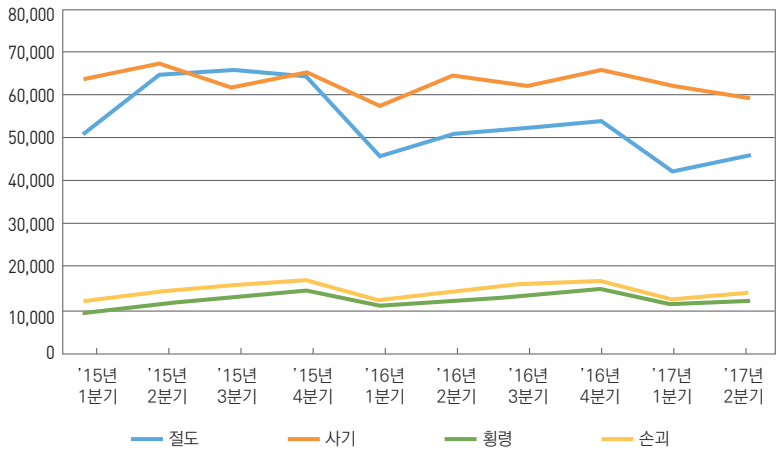


괴(13,543건, 10.2%), 횡령(12,343건, 9.3%), 배임(1,205건, 0.9%)의 순이고, 장물(488건, 0.4%)이 가장 적음

● 장물범죄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증가한 반면, 사기, 배임범죄는 1, 2분기 모두 감소. 또한 절도, 횡령, 손괴범죄는 1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증가

- 2017년 1분기 전체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14.8% 감소한 가운데, 재산범죄 유형 중에서 장물범죄만 증가. 절도, 횡령, 손괴범죄의 감소율이 높음

[그림 Ⅰ-18] 재산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2017년 2분기 전체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1분기 대비 2.1% 증가한 가운데, 재산범죄 유형 중에서 사기범죄와 배임범죄는 감소. 장물범죄의 증가율과 배임범죄의 감소율이 높음
- 절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2,553건 발생하여, 전분기 53,838건 대비 21.0%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46,306건으로 1분기 대비 8.8% 증가
- 장물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38건 발생하여, 전분기 385건 대비 13.8%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488건으로 1분기 대비 11.4% 증가
- 사기범죄는 2017년 1분기에 62,006건 발생하여, 전분기 65,868건 대비 5.9%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59,170건으로 1분기 대비 4.6% 감소
- 횡령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1,571건 발생하여, 전분기 14,922건 대비 22.5%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12,343건으로 1분기 대비 6.7% 증가
- 배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380건 발생하여, 전분기 1,466건 대비 5.9%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205건으로 1분기 대비 12.7% 감소
- 손괴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2,322건 발생하여, 전분기 16,413건 대비 24.9%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13,543건으로 1분기 대비 9.9% 증가

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절도, 장물, 손괴범죄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기, 배임범죄의 경우 1분기에는 증가하고 2분기에만 감소. 횡령범죄는 1분기에는 증가하고, 2분기에는 거의 변동 없음

- 2017년 1분기 전체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0% 증가한 가운데, 재산범죄 유형 중에서 절도와 장물범죄는 뚜렷이 감소
- 2017년 2분기 전체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7.6% 감소한 가운데, 재산범죄 유형 중에서 횡령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이 감소하였고, 특히 장물과 배임범죄의 감소폭이 큼
- 절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2,553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45,953건 대비 7.4%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46,306건으로 전년 동분기 50,610건 대비 8.5% 감소
- 장물범죄는 2017년 1분기에 438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499건 대비 12.2% 감소하였고, 2분기

에는 488건으로 전년 동분기 682건 대비 28.4% 감소
- 사기범죄는 2017년 1분기에 62,006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57.450건 대비 7.9%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59,170건으로 전년 동분기 64,358건 대비 8.1% 감소
- 횡령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1,571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1,318건 대비 2.2%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12,343건으로 전년 동분기 12,344건 대비 1건 감소
- 배임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380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373건 대비 7건 증가하였으나(0.5%), 2분기에는 1,205건으로 전년 동분기 1,608건 대비 25.1% 감소
- 손괴범죄는 2017년 1분기에 12,322건 발생하여, 전년 동분기 12,406건 대비 0.7%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3,543건으로 전년 동분기 14,429건 대비 6.1% 감소

5.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가. 발생건수 및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1분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교통범죄 유형은 교통사고범죄이고, 2분기에는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음
  - 2017년 1분기 130,083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범죄가 70,750건, 기타 교통범죄가 59,333건으로 전체 교통범죄에서 교통사고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4%로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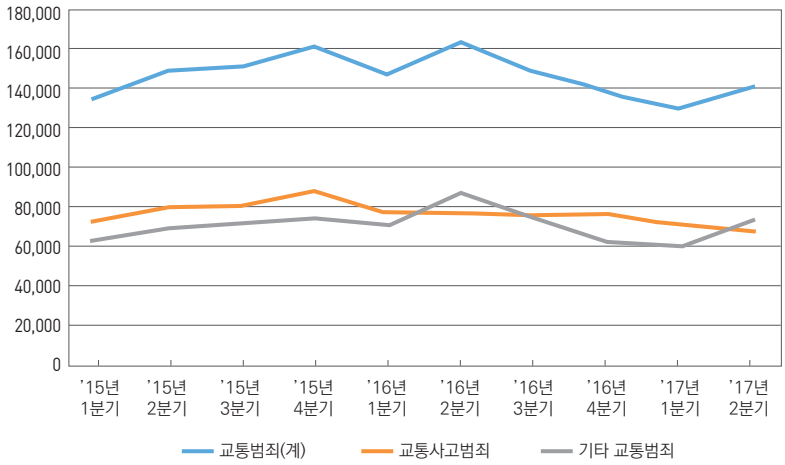
[표 I-9] 교통범죄의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구 분		교통범죄 (계)	교통사고범죄	기타 교통범죄
'15	연간	597,473	320,249	277,224
	1분기	135,472	72,476	62,996
	2분기	148,620	79,540	69,080
	3분기	151,984	80,590	71,394
	4분기	161,397	87,643	73,754
'16	연간	598,587	304,593	293,994
	1분기	147,575	76,978	70,597
	2분기	163,894	77,141	86,753
	3분기	148,804	74,811	73,993
	4분기	138,314	75,663	62,651
'17	1분기	130,083	70,750	59,333
	전분기 대비 증감률	-6.0%	-6.5%	-5.3%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1.9%	-8.1%	-16.0%
	2분기	141,124	67,823	73,301
	전분기 대비 증감률	8.5%	-4.1%	23.5%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3.9%	-12.1%	-15.5%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Ⅰ-19] 교통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단위 : 건)



- 2017년 2분기 141,124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범죄가 67,823건, 기타 교통범죄가 73,301건으로 전체 교통범죄에서 기타 교통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9%로 더 높음

● 교통사고범죄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기타 교통범죄는 1분기에만 감소하고 2분기에 증가
- 2017년 1분기 전체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6.0% 감소한 가운데, 기타 교통범죄와 교통사고범죄 모두 감소
- 2017년 2분기 전체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교통범죄 유형 중에서 기타 교통범죄는 증가하였으나, 교통사고범죄는 감소. 2분기 전체 교통범죄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은 기타 교통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기인
- 교통사고범죄는 2017년 1분기에 70,750건 발생하여, 전분기 75,663건 대비 6.5%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7,823건으로 1분기 대비 4.1% 감소
- 기타 교통범죄는 2017년 1분기에 59,333건 발생하여 전분기 62,651건 대비 5.3%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73,301건으로 1분기 대비 23.5% 증가

나.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교통사고범죄와 기타 교통범죄 모두 2017년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11.9% 감소한 가운데, 교통범죄 유형 중에서 교통사고범죄와 기타 교통범죄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타 교통범죄 감소율이 높음
- 2017년 2분기 전체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13.9% 감소한 가운데, 교통사고범죄와 기타 교통범죄 모두 감소하였으며, 감소율 역시 유사
- 교통사고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 70,750건으로 전년 동분기 76,978건 대비 8.1%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7,823건으로 전년 동분기 77,141건 대비 12.1% 감소
-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 59,333건으로 전년 동분기 70,597건 대비 16.0%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73,301건으로 전년 동분기 86,753건 대비 15.5% 감소

II. 범죄자 특성별 동향

1. 여성범죄자

가. 전체범죄

● 2017년 1분기 여성범죄자 수는 전분기 대비 8.2%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6.0% 증가.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18%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의 여성범죄자 수는 85,884명으로 전분기의 93,520명에 비해 8.2%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14.1%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낮아짐
- 2017년 2분기의 여성범죄자 수는 91,078명으로 1분기에 비해 6.0%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16.9%, 2016년 17.3%인 점과 비교하여,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낮아짐
- 2017년 2분기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표 II-1] 분기별 여성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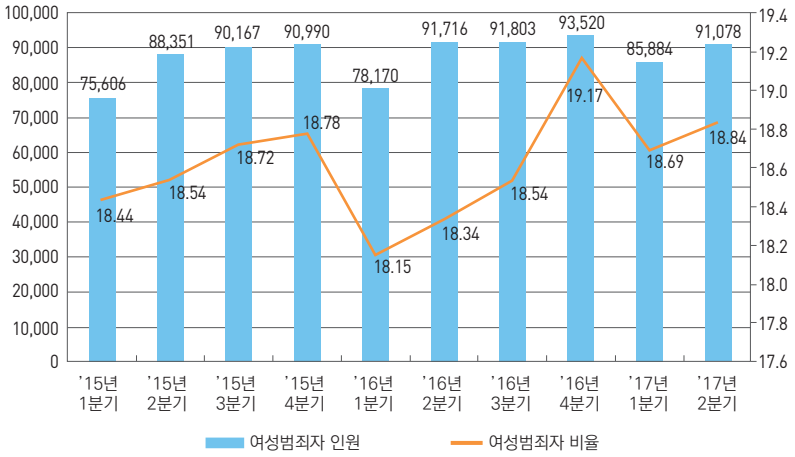
(단위 : 명, %, %p)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5	연간	345,114	18.6	1,079	3.4	54,990	16.1	88,565	21.0	81,741	14.8
	1분기	75,606	18.4	223	3.9	10,933	15.0	19,186	21.2	17,638	14.1
	2분기	88,351	18.5	260	3.3	13,777	15.8	23,784	21.0	20,418	14.8
	3분기	90,167	18.7	311	3.4	15,306	16.6	23,096	20.9	20,872	15.0
	4분기	90,990	18.8	285	3.4	14,974	16.7	22,499	20.9	22,813	15.3
'16	연간	355,209	18.6	1,137	3.5	56,365	16.4	88,630	21.3	81,806	14.8
	1분기	78,170	18.1	259	4.1	12,479	16.0	19,497	20.9	19,519	14.5
	2분기	91,716	18.3	268	3.2	14,101	15.9	22,507	21.0	22,139	14.6
	3분기	91,803	18.5	308	3.3	15,075	16.8	22,104	21.0	20,254	14.8
	4분기	93,520	19.2	302	3.4	14,710	16.9	24,522	22.3	19,894	15.5
'17	1분기	85,884	18.7	297	4.2	12,779	16.1	22,098	21.4	18,103	14.9
	전분기 대비 증감률	-8.2%	-0.5%p	-1.7%	0.8%p	-13.1%	-0.8%p	-9.9%	-0.9%p	-9.0%	-0.6%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9.9%	0.5%p	14.7%	0.1%p	2.4%	0.1%p	13.3%	0.5%p	-7.3%	0.4%p
	2분기	91,078	18.8	321	3.6	13,605	16.4	23,015	21.5	20,223	15.1
	전분기 대비 증감률	6.0%	0.1%p	8.1%	-0.6%p	6.5%	0.3%p	4.1%	0.1%p	11.7%	0.2%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0.7%	0.5%p	19.8%	0.4%p	-3.5%	0.6%p	2.3%	0.5%p	-8.7%	0.6%p

주 : 1)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2) 여성범죄자 비율=[여성범죄자/(남성범죄자+여성범죄자-성별 미상)]×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피의자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Ⅱ-1] 전체범죄 분기별 여성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



전체 범죄자에서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로 1분기 18.7%에 비해 0.1%p 증가하여 큰 변동 없음

- 2017년 1분기 여성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9.9%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유사한 수준 유지.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전체 여성범죄자 수는 85,884명으로 전년 동분기 78,170명에 비하여 9.9% 증가. 2분기 전체 여성범죄자의 수는 91,078명으로 전년 동분기 91,716명에 비하여 0.7% 소폭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은 18.7%로 전년 동분기 18.1%에 비하여 0.5%p 증가하고, 2분기에는 18.8%로 전년 동분기 18.3%에 비하여 0.5%p 증가하여 큰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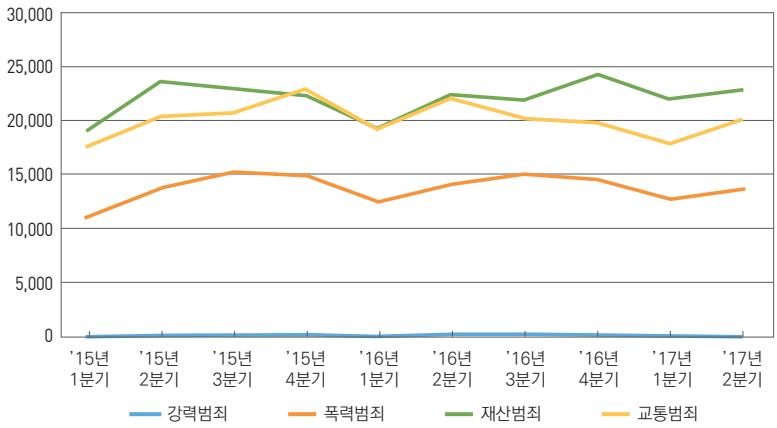
나. 주요 범죄군

1) 주요 범죄군의 여성범죄자 수와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여성범죄자 수는 재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여성범죄자 수는 재산범죄가 22,098명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18,103명, 폭력범죄 12,779명, 강력범죄 297명의 순
  - 2017년 2분기 여성범죄자 수는 재산범죄가 23,015명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20,223명, 폭력범죄 13,605명, 강력범죄 321명의 순

- 2017년 상반기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순으로 높으며, 강력범죄가 가장 낮음
  - 2017년 1분기 여성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로, 전체 재산범죄자의 21.4%가 여성임. 그 다음은 폭력범죄 16.1%, 교통범죄 14.9%의 순이며, 강력범죄자 중 여성비율이 4.2%로 가장 낮음
  - 2017년 2분기 여성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로, 전체 재산범죄자의 21.5%가 여성임. 그 다음은 폭력범죄 16.4%, 교통범죄 15.1%의 순이며, 강력범죄자 중 여성비율이 3.6%로 가장 낮음

[그림 Ⅱ-2]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범죄자 인원수
(단위 : 명)



- 여성 폭력범죄자는 절대수 면에서는 교통범죄에 비하여 적으나, 비율 면에서 교통범죄보다 높음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여성범죄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모두 증가. 2분기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1분기 수준을 유지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여성범죄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1.7%, 폭력범죄는 13.1%, 재산범죄는 9.9%, 교통범죄는 9.0% 감소하여 폭력범죄의 감소폭이 가장 큼
- 2017년 2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여성범죄자 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8.1%, 폭력범죄는 6.5%, 재산범죄는 4.1%, 교통범죄는 11.7% 증가하여 교통범죄의 증가폭이 가장 큼
- 2017년 2분기 주요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은 폭력범죄(0.3%p), 재산범죄(0.1%p), 교통범죄(0.2%p) 모두 1분기 대비 소폭 증가. 다만 강력범죄자 중 여성비율은 1분기 대비 소폭 감소(0.6%p)

2)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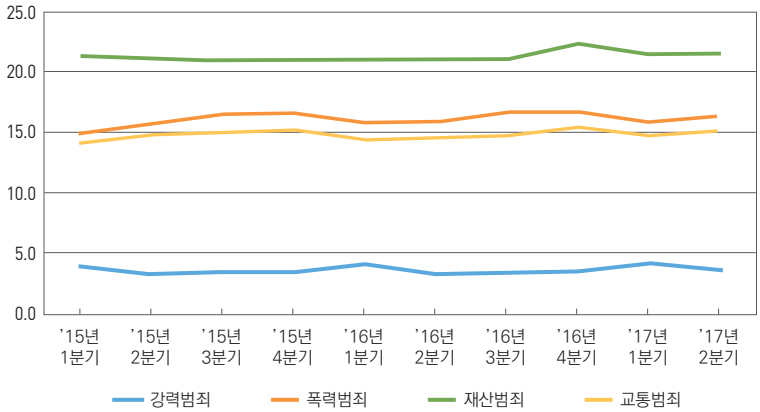
● 2017년 상반기 여성범죄자 수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교통범죄는 감소. 폭력범죄는 1분기에만 소폭 증가.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여성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4.7%와 13.3%, 2.4% 증가한 반면, 교통범죄는 7.3% 감소. 특히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증감률이 높음
- 2017년 2분기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여성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9.8%와 2.3%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각각 3.5%와 8.7% 감소. 특히 강력범죄와 교통범죄의 증감폭이 큼
- 2017년 1, 2분기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은 4가지 범죄유형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0.1-0.6%p 소폭 증가

● 여성 강력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14.7%와 19.8%증가하였고, 강력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여성 강력범죄자 수는 297명으로

[그림 Ⅱ-3]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범죄자 비율
(단위 : %)



전년 동분기 259명에 비하여 14.7%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321명으로 전년 동분기 268명에 비하여 19.8% 증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4.2%로 전년 동분기 4.1%에 비하여 0.1%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3.6%로 전년 동분기 3.2%에 비하여 0.4%p 증가

● 여성 폭력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3.5% 감소. 폭력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여성 폭력범죄자 수는 12,779명으로 전년 동분기 12,479명에 비하여 2.4%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3,605명으로 전년 동분기 14,101명에 비하여 3.5% 감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16.1%로 전년 동분기 16.0%에 비하여 0.1%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6.4%로 전년 동분기 15.9%에 비하여 0.6%p 증가

● 여성 재산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13.3%와 2.3% 증가하였고, 재산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여성 재산범죄자 수는 22,098명으로 전년 동분기 19,497명에 비하여 13.3%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23,015명으로 전년 동분기 22,507명에 비하여 2.3% 증가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21.4%로 전년 동분기 20.9%에 비하여 0.5%p 증가하였고, 2분기 21.5%로 전년 동분기 21.0%에 비하여 0.5%p 증가

● 여성 교통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7.3%와 8.7% 감소하였고, 교통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여성 교통범죄자 수는 18,103명으로 전년 동분기 19,519명에 비하여 7.3%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20,223명으로 전년 동분기 22,139명에 비하여 8.7%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자 중 여성범죄자 비율은 14.9%로 전년 동분기 14.5%에 비하여 0.4%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5.1%로 전년 동분기 14.6%에 비하여 0.6%p 증가

2. 소년범죄자

가. 전체범죄

● 2017년 1분기 전체 소년범죄자 수는 전분기 대비 10.8%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2.7% 증가.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3% 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의 소년범죄자 수는 17,415명으로 전분기의 19,525명에 비해 10.8%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17.3%인데 비하여 감소폭이 다소 작음
- 2017년 2분기의 소년범죄자 수는 17,883명으로 1분기에 비해 2.7%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이 25.2%, 2016년이 21.0%인 점과 비교할 때 2017년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크게 감소
- 2017년 2분기 전체 범죄자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1분기 3.8%에 비해 0.1%p 감소하여 큰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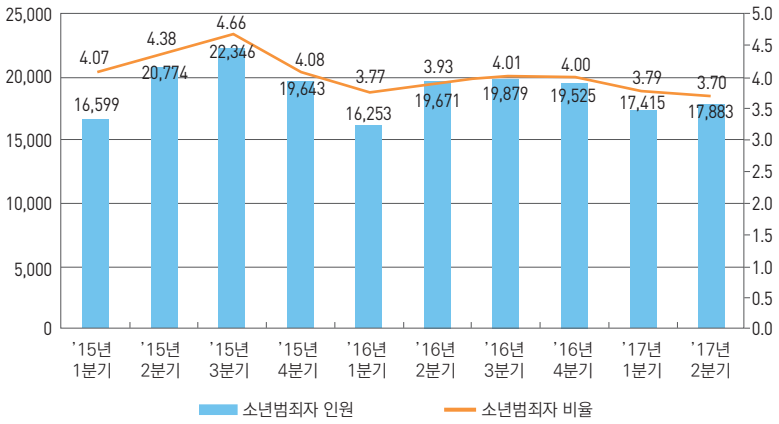
[표 Ⅱ-2] 분기별 소년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 %p)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5	연간	79,362	4.3	3,034	9.7	19,158	5.6	37,553	9.0	9,016	1.6
	1분기	16,599	4.1	570	9.9	4,088	5.6	7,598	8.5	1,658	1.3
	2분기	20,774	4.4	850	10.6	4,822	5.5	10,164	9.0	2,342	1.7
	3분기	22,346	4.7	798	8.7	5,228	5.6	10,889	9.9	2,691	1.9
	4분기	19,643	4.1	816	9.7	5,020	5.6	8,902	8.3	2,325	1.6
'16	연간	75,328	3.9	3,321	10.1	19,322	5.6	32,832	7.9	9,227	1.7
	1분기	16,253	3.8	698	10.9	4,299	5.5	7,028	7.5	1,874	1.4
	2분기	19,671	3.9	864	10.4	5,161	5.8	8,631	8.1	2,320	1.5
	3분기	19,879	4.0	921	10.0	4,717	5.3	8,826	8.4	2,536	1.9
	4분기	19,525	4.0	838	9.3	5,145	5.9	8,347	7.6	2,497	1.9
'17	1분기	17,415	3.8	669	9.4	4,963	6.3	7,141	6.9	1,980	1.6
	전분기 대비 증감률	-10.8%	-0.2%p	-20.2%	0.1%p	-3.5%	0.4%p	-14.4%	-0.7%p	-20.7%	-0.3%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7.1%	0.0%p	-4.2%	-1.5%p	15.4%	0.8%p	1.6%	-0.6%p	5.7%	0.2%p
	2분기	17,883	3.7	874	9.8	5,258	6.3	7,204	6.7	2,360	1.8
	전분기 대비 증감률	2.7%	-0.1%p	30.6%	0.4%p	5.9%	0.1%p	0.9%	-0.2%p	19.2%	0.1%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9.1%	-0.2%p	1.2%	-0.6%p	1.9%	0.5%p	-16.5%	-1.3%p	1.7%	0.2%p

주 : 1)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2) 소년범죄자 비율=[소년범죄자/(전체범죄자-연령 미상)]×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피의자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Ⅱ-4] 전체범죄 분기별 소년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



● 2017년 1분기 소년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7.1%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9.1% 감소.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소년범죄자 수는 17,415명으로 전년 동분기 16,253명에 비하여 7.1% 증가. 2분기 소년범죄자의 수는 17,883명으로 전년 동분기 19,671명에 비하여 9.1%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8%로 전년 동분기와 변동 없음. 2분기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7%로 전년 동분기 3.9%에 비하여 0.2%p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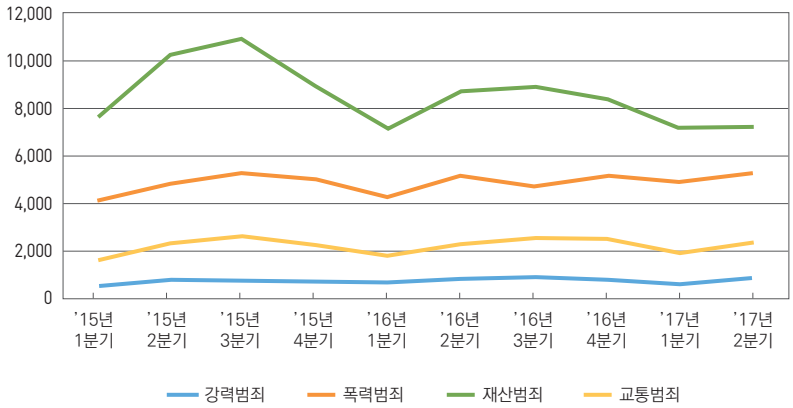
나. 주요 범죄군

1) 주요 범죄군의 소년범죄자 수와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소년범죄자 수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소년범죄자 수는 재산범죄가 7,141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범죄 4,963명, 교통범죄 1,980명, 강력범죄 669명의 순
- 2017년 2분기 소년범죄자 수는 재산범죄가 7,204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범죄 5,258명, 교통범죄 2,360명, 강력범죄 874명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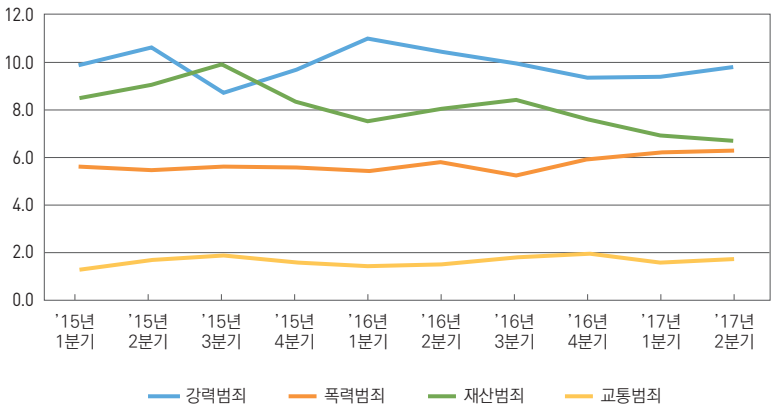
● 2017년 상반기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 비율은 강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교통범죄가 가장 낮음
- 2017년 1분기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로, 전체 강력범죄자 중 9.4%가 소년임. 그 다음은 재산범죄 6.9%, 폭력범죄 6.3%의 순이며, 교통범죄자 중 소년비율이 1.6%로 가장 낮음
- 2017년 2분기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로, 전체 강력범죄자 중 9.8%가 소년임. 그 다음은 재산범죄 6.7%, 폭력범죄 6.3%의 순이며, 교통범죄자 중 소년비율이 1.8%로 가장 낮음
- 이러한 순위는 2015년 1분기 이후 유지되어 왔으나, 2015년 3분기에는 재산범죄자 중 소년비율이 9.9%로 강력범죄 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함

[그림 Ⅱ-5] 주요 범죄군 분기별 소년범죄자 인원수
(단위 : 명)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소년범죄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모두 증가, 2분기 소년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1분기 수준을 유지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소년범죄자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20.2%, 폭력범죄는 3.5%, 재산범죄는 14.4%, 교통범죄는 20.7% 감소하여 강력범죄와 교통범죄의 감소폭이 큼
  - 2017년 2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소년범죄자수가 1분기 대비 증가.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30.6%, 폭력범죄는 5.9%, 재산범죄는 0.9%, 교통범죄는 19.2% 증가하여 강력범죄와 교통범죄의 증가폭이 큼
  - 2017년 2분기 주요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 비율은 강력범죄(0.4%p), 폭력범죄(0.1%p), 교통범죄(0.1%p) 모두 1분기 대비 소폭 증가. 다만 재산범죄자 중 소년비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0.2%p)

[그림 Ⅱ-6] 주요 범죄군 분기별 소년범죄자 비율
(단위 : %)



2)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소년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는 강력범죄, 2분기에는 재산범죄에서만 감소하였고, 대체로 증가추세. 소년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소폭 증감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15.4%), 재산범죄(1.6%), 교통범죄(5.7%)의 소년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수는 감소(4.2%). 특히 폭력범죄의 증가율이 높음
  - 2017년 2분기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는 소년범죄자 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2%, 1.9%, 1.7% 증가한 반면, 재산범죄는 무려 16.5% 감소
  -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소폭 증감

- 2017년 1분기 소년 강력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4.2%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1.2% 증가. 강력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소폭 감소
  - 2017년 1분기 소년 강력범죄자 수는 669명으로 전년 동분기 698명에 비하여 4.2%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874명으로 전년 동분기 864명에 비하여 1.2% 증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9.4%로 전년 동분기 10.9%에 비하여 1.5%p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9.8%로 전년 동분기 10.4%에 비하여 0.6%p 감소

- 소년 폭력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15.4%와 1.9% 증가하였고, 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소폭 증가
  - 2017년 1분기 소년 폭력범죄자 수는 4,963명으로 전년 동분기 4,299명에 비하여 15.4%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5,258명으로 전년 동분기 5,161명에 비하여 1.9% 증가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6.3%로 전년 동분기 5.5%에 비하여 0.8%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6.3%로 전년 동분기 5.8%에 비하여 0.5%p 증가

- 2017년 1분기 소년 재산범죄자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16.5% 감소. 재산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소폭 감소
  - 2017년 1분기 소년 재산범죄자 수는 7,141명으로 전년 동분기 7,028명에 비하여 1.6%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7,204명으로 전년 동분기 8,631명에 비하여 16.5% 감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6.9%로 전년 동분기 7.5%에 비하여 0.6%p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7%로 전년 동분기 8.1%에 비하여 1.3%p 감소

- 소년 교통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5.7%와 1.7% 증가하였고, 교통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소폭 증가
  - 2017년 1분기 소년 교통범죄자 수는 1,980명으로 전년 동분기 1,874명에 비하여 5.7%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2,360명으로 전년 동분기 2,320명에 비하여 1.7% 증가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1.6%로 전년 동분기 1.4%에 비하여 0.2%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1.8%로 전년 동분기 1.5%에 비하여 0.2%p 증가

3. 고령범죄자

가. 전체범죄

● 2017년 1분기 고령범죄자 수는 전분기 대비 7.3%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13.3% 증가. 전체 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6%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의 고령범죄자 수는 27,908명으로 전분기의 30,110명에 비해 7.3%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이 13.2%인데 비하여,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감소율이 다소 낮아짐
- 2017년 2분기의 고령범죄자 수는 31,616명으로 전분기의 27,908명에 비해 13.3%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24.8%, 2016년 20.9%인 점과 비교하여,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 2017년 2분기 전체 범죄자에서 고령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1분기 6.1%에 비해 0.5%p 증가

[표 Ⅱ-3]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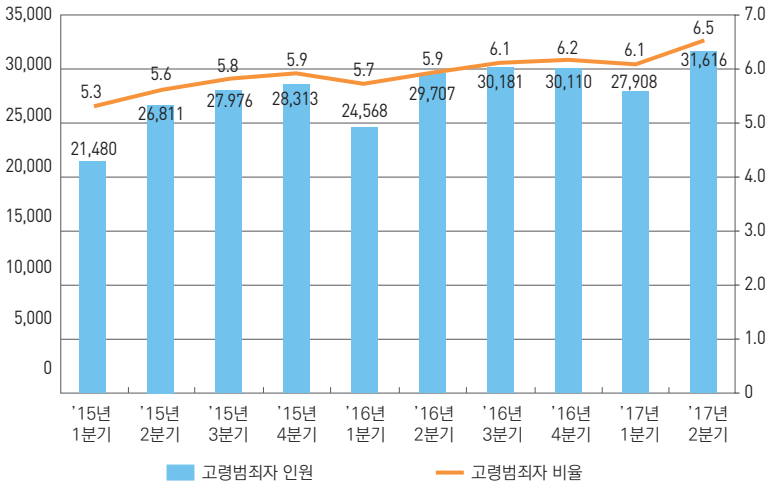
(단위 : 명, %, %p)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5	연간	104,580	5.7	1,463	4.6	16,278	4.7	23,032	5.3	34,364	6.2
	1분기	21,480	5.3	259	4.4	2,976	4.0	4,838	5.1	7,080	5.6
	2분기	26,811	5.6	349	4.3	4,176	4.8	5,880	5.1	8,718	6.3
	3분기	27,976	5.8	439	4.7	4,746	5.1	6,179	5.5	8,782	6.3
	4분기	28,313	5.9	416	4.9	4,380	4.9	6,135	5.6	9,784	6.6
'16	연간	114,566	6.0	1,623	4.9	17,266	5.0	26,046	6.3	37,083	6.7
	1분기	24,568	5.7	286	4.5	3,569	4.6	5,472	5.9	8,322	6.2
	2분기	29,707	5.9	405	4.9	4,445	5.0	6,678	6.2	9,631	6.3
	3분기	30,181	6.1	449	4.9	4,776	5.3	6,757	6.4	9,512	7.0
	4분기	30,110	6.2	483	5.4	4,476	5.1	7,139	6.5	9,618	7.5
'17	1분기	27,908	6.1	370	5.2	3,721	4.7	6,644	6.4	8,463	7.0
	전분기 대비 증감률	-7.3%	-0.1%p	-23.4%	-0.2%p	-16.9%	-0.4%p	-6.9%	-0.1%p	-12.0%	-0.5%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3.6%	0.4%p	29.4%	0.7%p	4.3%	0.1%p	21.4%	0.6%p	1.7%	0.8%p
	2분기	31,616	6.5	423	4.7	4,259	5.1	7,565	7.1	9,432	7.1
	전분기 대비 증감률	13.3%	0.5%p	14.3%	-0.5%p	14.5%	0.5%p	13.9%	0.6%p	11.4%	0.1%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6.4%	0.6%p	4.4%	-0.2%p	-4.2%	0.1%p	13.3%	0.8%p	-2.1%	0.7%p

주 : 1)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2) 고령범죄자 비율=[고령범죄자/(전체범죄자-연령 미상)]×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피의자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Ⅱ-7] 전체범죄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



- 고령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13.6%, 2분기에 6.4% 증가하였고, 전체 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고령범죄자 수는 27,908명으로 전년 동분기 24,568명에 비하여 13.6%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31,616명으로 전년 동분기 29,707명에 비하여 6.4% 증가
  - 2017년 1분기 전체 범죄자 중 고령범죄자의 비율은 6.1%로 전년 동분기 5.7%에 비하여 0.4%p 증가. 2분기 전체 범죄자 중 고령범죄자의 비율은 6.5%로 전년 동분기 5.9%에 비하여 0.6%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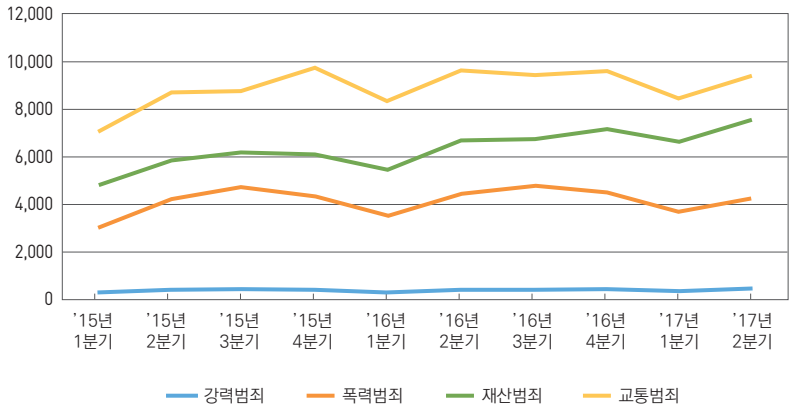
나. 주요 범죄군

1) 고령범죄자 수와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고령범죄자 수는 교통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고령범죄자 수는 교통범죄가 8,463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 6,644명, 폭력범죄 3,721명, 강력범죄 370명의 순
  - 2017년 2분기 고령범죄자 수는 교통범죄가 9,432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 7,565명, 폭력범죄 4,259명, 강력범죄 423명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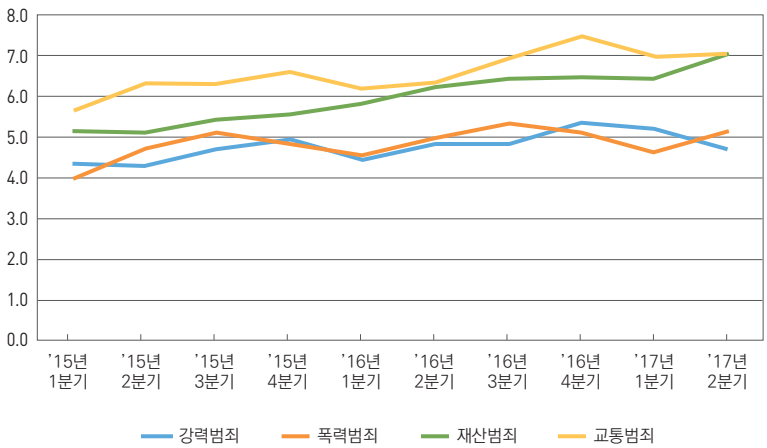
- 2017년 상반기 범죄유형별 고령범죄자 비율은 교통범죄와 재산범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강력범죄와 폭력범죄가 낮음
  - 2017년 1분기 고령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교통범죄로, 전체 교통범죄자의 7.0%가 고령자임. 그 다음은 재산범죄 6.4%, 강력범죄 5.2%의 순이며, 폭력범죄자 중 고령자 비율이 4.7%로 가장 낮음
  - 2017년 2분기 고령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로, 전체 교통범죄자와 전체 재산범죄자의 각각 7.1%가 고령자임. 그 다음은 폭력범죄 5.1%이며, 강력범죄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4.7%로 가장 낮음

[그림 Ⅱ-8] 주요 범죄군 분기별 고령범죄자 인원수
(단위 : 명)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고령범죄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모두 증가. 2분기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1분기 수준을 유지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고령범죄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23.4%, 폭력범죄는 16.9%, 재산범죄는 6.9%, 교통범죄는 12.0% 감소
  - 2017년 2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고령범죄자 수가 1분기 대비 증가. 강력범죄는 1분기 대비 14.3%, 폭력범죄는 14.5%, 재산범죄는 13.9%, 교통범죄는 11.4% 증가
  - 2017년 2분기 주요 범죄유형별 고령범죄자 비율은 폭력범죄(0.5%p)와 재산범죄(0.6%p)에서 1분기 대비 증가하고 강력범죄자 중 고령자 비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0.5%p). 교통범죄는 0.1%p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음

[그림 Ⅱ-9] 주요 범죄군 분기별 고령범죄자 비율
(단위 : %)



2)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1분기 고령범죄자 수는 주요 범죄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에서만 증가하고,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감소.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고령범죄자 수가 주요 범죄유형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 강력범죄는 29.4%, 재산범죄는 21.4%, 폭력범죄는 4.3%, 교통범죄는 1.7% 증가하여,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2017년 2분기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는 고령범죄자 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3.3%와 4.4%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는 각각 4.2%와 2.1% 감소. 재산범죄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2017년 1, 2분기 범죄유형별 고령범죄자 비율은 4가지 범죄유형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1%p 미만 수준으로 증감하여, 큰 변화가 없음

● 고령 강력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29.4%와 4.4% 증가하였고, 강력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고령 강력범죄자 수는 370명으로 전년 동분기 286명에 비하여 29.4%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423명으로 전년 동분기 405명에 비하여 4.4% 증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5.2%로 전년 동분기 4.5%에 비하여 0.7%p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4.7%로 전년 동분기 4.9%에 비하여 0.2%p 감소

● 고령 폭력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4.2% 감소. 폭력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고령 폭력범죄자 수는 3,721명으로 전년 동분기 3,569명에 비하여 4.3%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4,259명으로 전년 동분기 4,445명에 비하여 4.2% 감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4.7%로 전년 동분기 4.6%에 비하여 0.1%p 증가. 2분기 폭력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5.1%로 전년 동분기 5.0%에 비하여 0.1%p 증가

● 고령 재산범죄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21.4%와 13.3% 증가하였고, 재산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고령 재산범죄자 수는 6,644명으로 전년 동분기 5,472명에 비하여 21.4%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7,565명으로 전년 동분기 6,678명에 비하여 13.3% 증가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6.4%로 전년 동분기 5.9%에 비하여 0.6%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7.1%로 전년 동분기 6.2%에 비하여 0.8%p 증가

● 고령 교통범죄자 수는 2017년 1분기에는 1.7%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2.1% 감소. 교통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고령 교통범죄자 수는 8,463명으로 전년 동분기 8,322명에 비하여 1.7%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9,432명으로 전년 동분기 9,631명에 비하여 2.1%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7.0%로 전년 동분기 6.2%에 비하여 0.8%p 증가. 2분기 교통범죄자 중 고령범죄자 비율은 7.1%로 전년 동분기 6.3%에 비하여 0.7%p 증가

4. 전과자[3)]

가. 전체범죄

● 2017년 1분기 전과자 수는 전분기 대비 10.8%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9.5% 증가.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0%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의 전과자 수는 197,792명으로 전분기의 221,712명에 비해 10.8%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인 10.3%와 유사한 수준
- 2017년 2분기의 전과자 수는 216,626명으로 1분기에 비해 9.5%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18.0%, 2016년 19.5%인 점과 비교할 때,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 2017년 2분기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가 차지하는

[표 Ⅱ-4] 분기별 전과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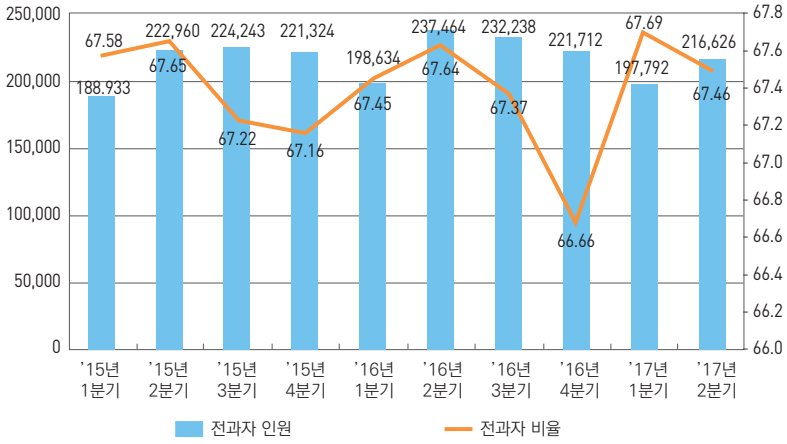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5	연간	857,460	67.4	16,015	59.1	160,719	70.7	184,216	68.7	256,516	65.5
	1분기	188,933	67.6	3,077	62.4	34,249	70.9	38,695	69.0	59,706	65.7
	2분기	222,960	67.7	4,092	58.1	41,344	70.6	50,475	69.0	64,718	66.0
	3분기	224,243	67.2	4,664	58.3	43,681	70.9	48,715	68.0	64,393	65.4
	4분기	221,324	67.2	4,182	58.7	41,445	70.3	46,331	68.9	67,699	64.9
'16	연간	890,048	67.3	16,341	58.3	157,604	70.4	182,340	68.2	258,601	66.8
	1분기	198,634	67.5	3,309	60.6	35,621	69.8	40,848	69.1	63,095	66.0
	2분기	237,464	67.6	4,150	58.0	41,125	70.7	47,814	68.6	73,263	66.9
	3분기	232,238	67.4	4,445	56.6	40,966	70.4	46,829	68.1	64,508	67.6
	4분기	221,712	66.7	4,437	58.5	39,892	70.7	46,849	67.2	57,735	66.5
'17	1분기	197,792	67.7	3,463	58.7	34,978	69.4	43,354	68.6	54,504	66.5
	전분기 대비 증감률	-10.8%	1.0%p	-22.0%	0.2%p	-12.3%	-1.3%p	-7.5%	1.4%p	-5.6%	0.0%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0.4%	0.2%p	4.7%	-1.9%p	-1.8%	-0.4%p	6.1%	-0.5%p	-13.6%	0.5%p
	2분기	216,626	67.5	4,196	55.7	36,908	70.3	45,967	68.4	62,983	66.4
	전분기 대비 증감률	9.5%	-0.2%p	21.2%	-3.0%p	5.5%	0.9%p	6.0%	-0.2%p	15.6%	-0.1%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8.8%	-0.2%p	1.1%	-2.3%p	-10.3%	-0.4%p	-3.9%	-0.2%p	-14.0%	-0.4%p

주 : 1)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2) 전과자 비율=[전과자/(전체범죄자-전과 미상)]×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피의자통계원표 원자료

3) 수사기관에 검거된 범죄자 중 범죄경력조회결과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

[그림 Ⅱ-10] 전체범죄 분기별 전과자 인원수 및 비율
(단위 : 명, %)



비율은 67.5%로 1분기 67.7%에 비해 0.2%p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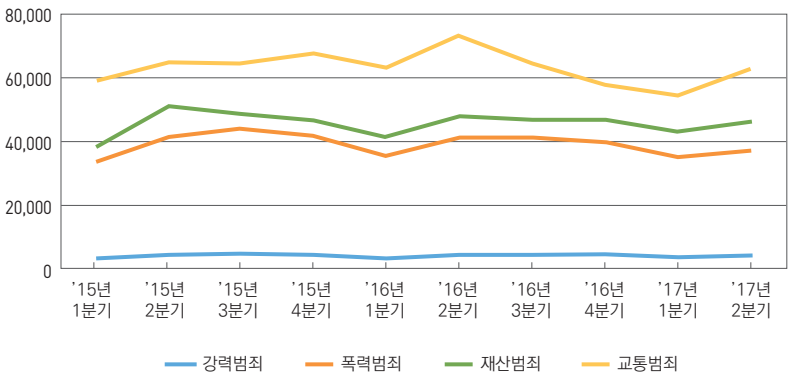
- 전과자 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0.4%, 2분기에는 8.8% 감소하였고,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전과자 수는 197,792명으로 전년 동분기 198,634명에 비하여 0.4%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216,626명으로 전년 동분기 237,464명에 비하여 8.8%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7.7%로 전년 동분기 67.5%에 비하여 0.2%p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67.5%로 전년 동분기 67.6%에 비하여 0.2%p 감소

나. 주요 범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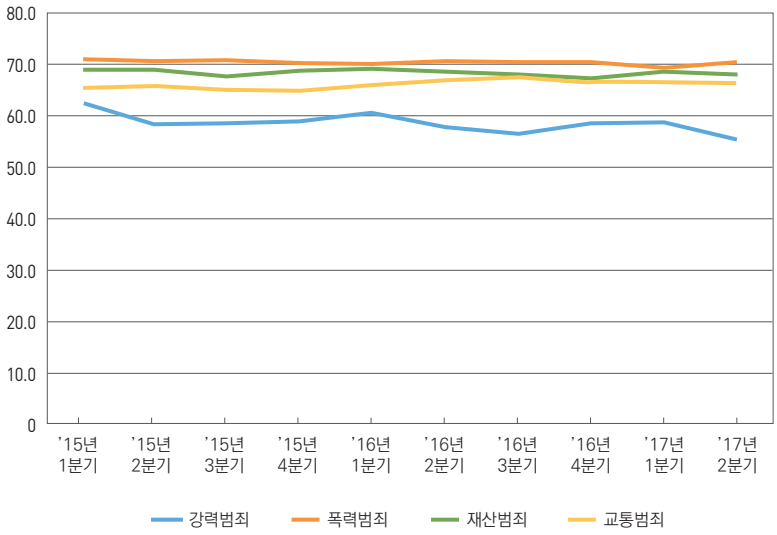
1) 주요 범죄군의 전과자 수와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전과자 수는 교통범죄, 재산범죄, 폭

[그림 Ⅱ-11] 주요 범죄군 분기별 전과자 인원수
(단위 : 명)



[그림 Ⅱ-12] 주요 범죄군 분기별 전과자 비율
(단위 : %)



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전과자 수는 교통범죄가 54,504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 43,354명, 폭력범죄 34,978명, 강력범죄 3,463명의 순
- 2017년 2분기 전과자 수는 교통범죄가 62,983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범죄 45,967명, 폭력범죄 36,908명, 강력범죄 4,196명의 순

● 2017년 상반기 범죄유형별 전과자 비율은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의 순으로 높고, 강력범죄가 가장 낮음

- 2017년 1분기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폭력범죄로 69.4%이고, 재산범죄 68.6%, 교통범죄 66.5%의 순이며, 강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58.7%로 가장 낮음
- 2017년 2분기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폭력범죄로 70.3%이고, 재산범죄 68.4%, 교통범죄 66.4%의 순이며, 강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55.7%로 가장 낮음

● 2017년 1분기 주요 범죄유형 모두 전과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는 모두 증가. 2분기 전과자 비율은 강력범죄에서만 소폭 감소하고, 그 외 범죄는 큰 변동없이 1분기 수준을 유지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전과자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22.0%, 폭력범죄는 12.3%, 재산범죄는 7.5%, 교통범죄는 5.6% 감소하여, 강력범죄와 폭력범죄의 감소폭이 큼
- 2017년 2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전과자 수가 1분기 대비 증가. 강력범죄는 1분기 대비 21.2%, 폭력범죄는 5.5%, 재산범죄는 6.0%, 교통범죄는 15.6% 증가하여 강력범죄와 교통범죄의 증가폭이 큼
- 2017년 2분기 주요 범죄유형별 전과자 비율은 강력범죄에서만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고(3.0%p), 그 외 범죄는 1%p 미만의 증감을 보임. 폭력범죄는 0.9%p 증가,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는 0.2%p와 0.1%p 감소

2)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1분기에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전과자 수가 증가한 반면, 2분기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수만 소폭 증가. 전과자 비율은 대체로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 전과자 수는 폭력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1.8%, 교통범죄는 13.6%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는 4.7%, 재산범죄는 6.1% 증가하여, 특히 교통범죄 전과자 수 감소가 두드러짐
  - 2017년 2분기 전과자 수는 폭력범죄는 전년 동분기 대비 10.3%, 재산범죄는 3.9%, 교통범죄는 14.0%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는 1.1% 증가하여 보합추세를 나타냄. 특히 교통범죄와 폭력범죄 전과자 수 증가가 두드러짐
  - 범죄유형별 전과자 비율은 대체로 감소 추세로, 강력범죄는 2분기에 2.3% 감소하였고,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는 1% 미만 수준으로 감소

- 강력범죄 전과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4.7%와 1.1% 증가하였고, 강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 2분기 모두 감소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전과자 수는 3,463명으로 전년 동분기 3,309명에 비하여 4.7% 증가. 2분기 강력범죄 전과자 수는 4,196명으로 전년 동분기 4,150명에 비하여 1.1% 증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58.7%로 전년 동분기 60.6%에 비하여 1.9%p 감소. 2분기 강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55.7%로 전년 동분기 58.0%에 비하여 2.3%p 감소

- 폭력범죄 전과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1.8%와 10.3% 감소하였고, 폭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전과자 수는 34,978명으로 전년 동분기 35,621명에 비하여 1.8%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36,908명으로 전년 동분기 41,125명에 비하여 10.3% 감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9.4%로 전년 동분기 69.8%에 비하여 0.4%p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70.3%로 전년 동분기 70.7%에 비하여 0.4%p 감소

- 재산범죄 전과자 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3.9% 감소. 재산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전과자 수는 43,354명으로 전년 동분기 40,848명에 비하여 6.1%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45,967명으로 전년 동분기 47,814명에 비하여 3.9% 감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8.6%로 전년 동분기 69.1%에 비하여 0.5%p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8.4%로 전년 동분기 68.6%에 비하여 0.2%p 감소

- 교통범죄 전과자 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13.6%와 14.0% 감소하였고, 교통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전과자 수는 54,504명으로 전년 동분기 63,095명에 비하여 13.6%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62,983명으로 전년 동분기 73,263명에 비하여 14.0%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6.5%로 전년 동분기 66.0%에 비하여 0.5%p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66.4%로 전년 동분기 66.9%에 비하여 0.4%p 감소

III.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1. 여성피해자

가. 전체범죄

● 2017년 1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전분기 대비 13.4% 감소하였으나, 2분기에 4.8% 증가. 전체 범죄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은 30%대로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의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102,433건으로 전분기의 118,345건에 비해 13.4%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 16.9%에 비해 다소 낮음

[표 III-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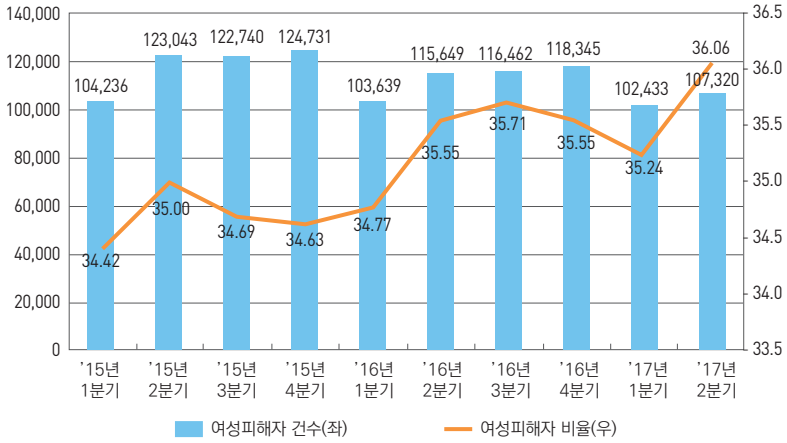
(단위 : 건, %, %p)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	연간	474,750	34.7	29,617	89.4	79,783	37.2	196,683	34.2	112,017	31.1
	1분기	104,236	34.4	5,075	86.5	15,767	35.7	45,055	34.9	25,039	30.7
	2분기	123,043	35.0	8,463	90.0	20,509	37.2	51,823	34.6	27,845	31.2
	3분기	122,740	34.7	8,689	90.6	22,309	38.5	49,156	33.4	28,329	31.2
	4분기	124,731	34.6	7,390	89.2	21,198	37.1	50,649	33.8	30,804	31.3
'16	연간	454,095	35.4	27,431	89.2	82,444	38.6	178,990	34.1	107,732	32.1
	1분기	103,639	34.8	5,319	87.5	18,411	38.5	40,650	34.3	26,499	31.1
	2분기	115,649	35.5	6,866	88.9	21,434	38.9	45,432	34.4	27,362	32.1
	3분기	116,462	35.7	7,667	89.7	22,534	39.7	44,819	33.6	26,651	32.5
	4분기	118,345	35.5	7,579	90.2	20,065	37.0	48,089	34.0	27,220	32.6
'17	1분기	102,433	35.2	5,689	87.8	17,478	36.6	41,444	34.8	24,813	31.8
	전분기 대비 증감률	-13.4%	-0.3%p	-24.9%	-2.4%p	-12.9%	-0.4%p	-13.8%	0.7%p	-8.8%	-0.7%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2%	0.5%p	7.0%	0.2%p	-5.1%	-1.9%p	2.0%	0.4%p	-6.4%	0.7%p
	2분기	107,320	36.1	7,562	89.6	18,535	36.2	43,091	34.9	24,502	32.7
	전분기 대비 증감률	4.8%	0.8%p	32.9%	1.8%p	6.0%	-0.4%p	4.0%	0.2%p	-1.3%	0.8%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7.2%	0.5%p	10.1%	0.7%p	-13.5%	-2.7%p	-5.2%	0.6%p	-10.5%	0.6%p

주 : 1)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2) 여성피해자 비율=[여성피해자/(전체피해자-성별 미상)]×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Ⅲ-1] 전체범죄 분기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 2017년 2분기의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107,320건으로 1분기에 비해 4.8%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18.0%, 2016년 11.6%인 것과 비교하여, 2017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감소
- 2017년 2분기 전체 범죄피해자에서 여성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1%로 1분기 35.2%에 비해 0.8%p 증가

●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1.2%, 2분기에 7.2% 감소하였고, 전체 범죄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102,433건으로 전년 동분기 103,639건에 비하여 1.2% 감소. 2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107,320건으로 전년 동분기 115,649건에 비하여 7.2%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범죄피해자 여성피해자 비율은 35.2%로 전년 동분기 34.8%에 비하여 0.5%p 증가. 2분기 여성피해자 비율은 36.1%로 전년 동분기 35.5%에 비하여 0.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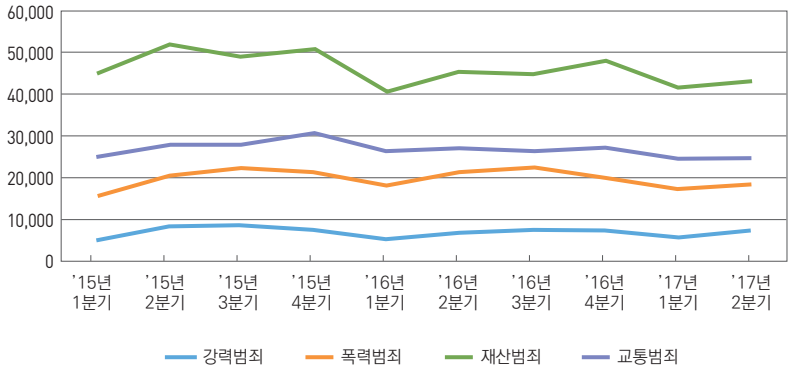
나. 주요 범죄군

1) 주요 범죄군의 여성피해자 수와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재산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의 순으로 많고, 강력범죄가 가장 적음
- 2017년 1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재산범죄가 41,444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24,813건, 폭력범죄 17,478건, 강력범죄 5,689건의 순
- 2017년 2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재산범죄가 43,091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 24,502건, 폭력범죄 18,535건, 강력범죄 7,562건의 순

● 2017년 상반기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80%대로 가장 높고,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는 30%대로 유사
- 2017년 1분기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87.8%로 가장 높고, 폭력범죄 36.6%, 재산범죄 34.8%, 교통범죄 31.8%의 순
- 2017년 2분기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89.6%로 가장 높고, 폭력범죄 36.2%,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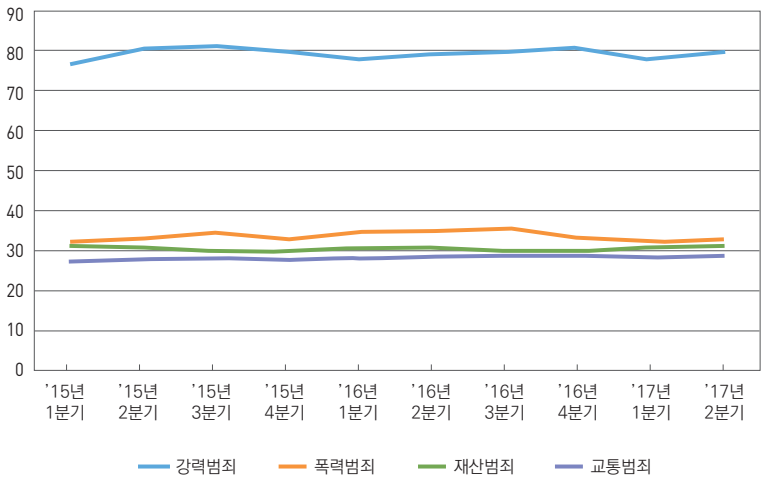
[그림 Ⅲ-2]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단위 : 건)



산범죄 34.9%, 교통범죄 32.7%의 순

- 2017년 1분기 주요 범죄유형 모두에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2분기에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3개 범죄에서 증가. 여성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에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 강력범죄는 전분기 대비 24.9%, 폭력범죄는 12.9%, 재산범죄는 13.8%, 교통범죄는 8.8% 감소
  - 2017년 2분기에 강력범죄와 폭력범죄, 재산범죄는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각각 32.9%, 6.0%, 4.0% 증가한 반면, 교통범죄는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1.3% 감소
  - 2017년 2분기 주요 범죄유형별 여성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1.8%p), 재산범죄(0.2%p), 교통범죄(0.8%p)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는 소폭 감소(0.4%p). 다만 증감폭이 작아 큰 변화가 없음

[그림 Ⅲ-3] 주요 범죄군 분기별 여성피해자 비율
(단위 : %)



2)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고, 2분기에는 강력범죄에서만 증가. 여성피해자 비율은 폭력범죄에서만 소폭 감소하고, 그 외 범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강력범죄가 7.0%, 재산범죄가 2.0%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는 5.1%, 교통범죄는 6.4% 감소
  - 2017년 2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강력범죄가 10.1%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는 13.5%, 재산범죄는 5.2%, 교통범죄는 10.5% 감소
  - 여성피해자 비율은 폭력범죄는 1분기에 1.9%p, 2분기에 2.7%p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는 증감률이 1%p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 2분기 모두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7.0%와 10.1% 증가하였고,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5,689건으로 전년 동분기 5,319건에 비하여 7.0%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7,562건으로 전년 동분기 6,866건에 비하여 10.1% 증가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7.8%로 전년 동분기 87.5%에 비하여 0.2%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89.6%로 전년 동분기 88.9%에 비하여 0.7%p 증가

- 2017년 1, 2분기 폭력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5.1%와 13.5% 감소. 2분기에는 폭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이 2.7%p 감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17,478건으로 전년 동분기 18,411건에 비하여 5.1%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18,535건으로 전년 동분기 21,434건에 비하여 13.5% 감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36.6%로 전년 동분기 38.5%에 비하여 1.9%p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36.2%로 전년 동분기 38.9%에 비하여 2.7%p 감소

- 재산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5.2% 감소. 재산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41,444건으로 전년 동분기 40,650건에 비하여 2.0% 증가. 2분기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43,091건으로 전년 동분기 45,432건에 비하여 5.2% 감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34.8%로 전년 동분기 34.3%에 비하여 0.4%p 증가. 2분기 여성피해자 비율은 34.9%로 전년 동분기 34.4%에 비하여 0.6%p 증가

- 2017년 1, 2분기 교통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6.4%와 10.5% 감소. 교통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24,813건으로 전년 동분기 26,499건에 비하여 6.4%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24,502건으로 전년 동분기 27,362건에 비하여 10.5%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31.8%로 전년 동분기 31.1%에 비하여 0.7%p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32.7%로 전년 동분기 32.1%에 비하여 0.6%p 증가

2. 아동피해자

가. 전체범죄

●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7.9% 감소한 반면, 2분기에는 51.0% 증가. 전체 범죄피해자 중 아동피해자 비율은 약 1%로 큰 변화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의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476건으로 전분기의 3,432건에 비해 27.9% 감소하였는데, 2015년 4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감소율 27.6%와 유사한 수준
- 2017년 2분기의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3,739건으로 1분기에 비해 51.0% 증가. 1분기 대비 2분기 증가율이 2015년 56.0%, 2016년 54.6%인 것과 비교하여, 2017년 증감률 역시 유사한 수준을 유지
- 2017년 2분기 전체 범죄피해자에서 아동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로 1분기 0.9%에 비해 0.4%p 증가

[표 Ⅲ-2]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분기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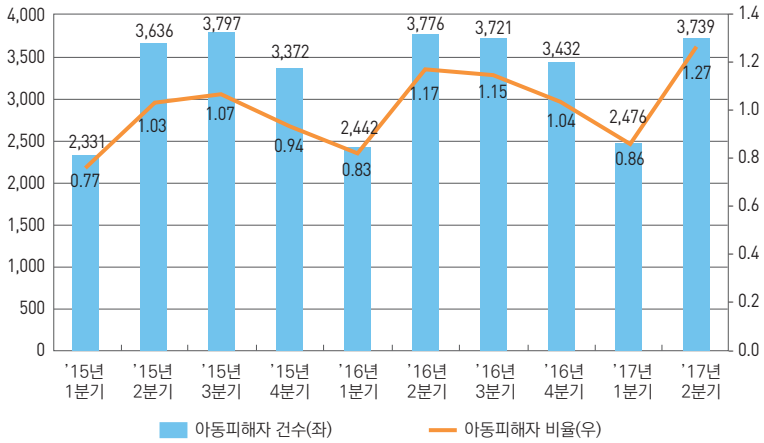
(단위 : 건, %, %p)

구 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교통범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	연간	13,136	1.0	1,322	3.9	1,212	0.6	1,347	0.2	7,581	2.1
	1분기	2,331	0.8	269	4.6	204	0.5	171	0.1	1,296	1.6
	2분기	3,636	1.0	342	3.6	355	0.6	365	0.2	2,152	2.4
	3분기	3,797	1.1	369	3.8	339	0.6	423	0.3	2,209	2.4
	4분기	3,372	0.9	342	3.6	314	0.6	388	0.3	1,924	2.0
'16	연간	13,371	1.1	1,232	4.1	1,215	0.6	1,251	0.2	6,938	2.1
	1분기	2,442	0.8	239	4.0	214	0.4	191	0.2	1,342	1.6
	2분기	3,776	1.2	327	4.3	316	0.6	295	0.2	2,092	2.5
	3분기	3,721	1.1	320	3.8	352	0.6	395	0.3	1,897	2.3
	4분기	3,432	1.0	346	4.2	333	0.6	370	0.3	1,607	1.9
'17	1분기	2,476	0.9	222	3.4	224	0.5	213	0.2	1,208	1.6
	전분기 대비 증감률	-27.9%	-0.2%p	-35.8%	-0.7%p	-32.7%	-0.1%p	-42.4%	-0.1%P	-24.8%	-0.4%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4%	0.0%p	-7.1%	-0.5%p	4.7%	0.0%p	11.5%	0.0%p	-10.0%	0.0%p
	2분기	3,739	1.3	310	3.8	372	0.7	315	0.3	2,003	2.7
	전분기 대비 증감률	51.0%	0.4%p	39.6%	0.4%p	66.1%	0.3%p	47.9%	0.1%p	65.8%	1.1%p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	-1.0%	0.1%p	-5.2%	-0.5%p	17.7%	0.2%p	6.8%	0.0%p	-4.3%	0.2%p

주 : 1) 전체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를 의미함
2) 아동피해자는 만13세 미만 피해자
3) 아동피해자 비율=[아동피해자/(전체연령-연령 미상)]×1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발생통계원표 원자료

[그림 Ⅲ-4] 전체범죄 분기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 1.0% 감소하였고, 전체 범죄피해자 중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476건으로 전년 동분기 2,442건에 비하여 1.4% 증가. 2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3,739건으로 전년 동분기 3,776건에 비하여 1.0% 감소
  - 2017년 1분기 전체 범죄피해자 아동피해자 비율은 0.9%로 전년 동분기 0.8%에 비하여 0.04%p 증가. 2분기 아동피해자 비율은 1.3%로 전년 동분기 1.2%에 비하여 0.1%p 증가

나. 주요 범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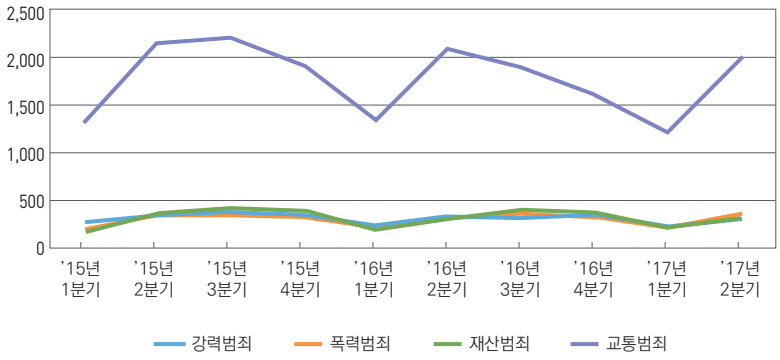
1) 아동피해자 수와 전분기 대비 동향

- 2017년 상반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교통범죄가 가장 많고,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는 유사한 수준
  - 2017년 1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교통범죄가 1,208건으로 가장 많고, 폭력범죄 224건, 강력범죄 222건, 재산범죄 213건의 순
  - 2017년 2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교통범죄가 2,003건으로 가장 많고, 폭력범죄 372건, 재산범죄 315건, 강력범죄 310건의 순

- 2017년 상반기 범죄유형별 아동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가장 높고, 교통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의 순
  - 2017년 1분기 아동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3.4%로 가장 높고, 교통범죄 1.6%, 폭력범죄 0.5%, 재산범죄 0.2%의 순
  - 2017년 2분기 아동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가 3.8%로 가장 높고, 교통범죄 2.7%, 폭력범죄 0.7%, 재산범죄 0.3%의 순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아동피해자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2분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동없이 유지
  - 2017년 1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아동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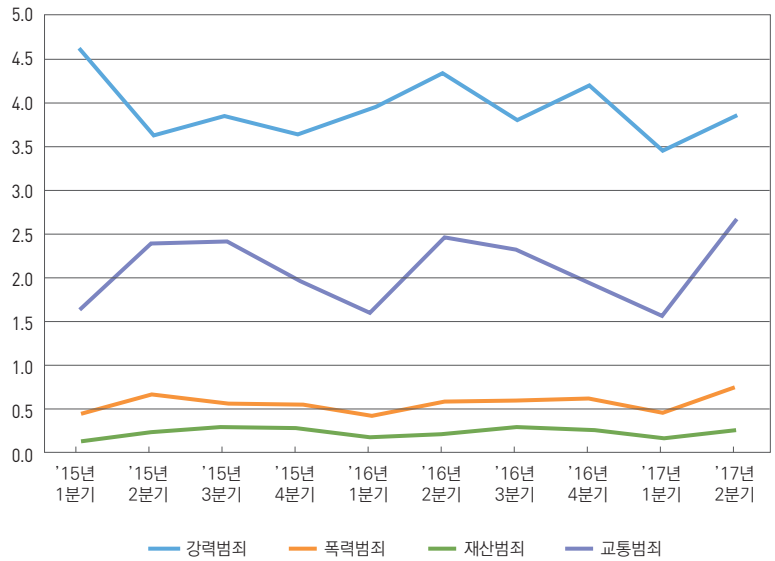
[그림 Ⅲ-5] 주요 범죄군 분기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단위 : 건)



발생건수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 재산범죄는 전분기 대비 42.4%, 강력범죄는 35.8%, 폭력범죄는 32.7%, 교통범죄는 24.8% 감소

- 2017년 2분기에는 주요 범죄유형 모두 아동피해자 발생건수가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폭력범죄와 교통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1분기와 비교하여 각각 66.1%와 65.8% 증가하였고, 재산범죄는 47.9%, 강력범죄는 39.6% 증가
- 2017년 2분기 주요 범죄유형별 아동피해자 비율은 강력범죄(0.4%p), 폭력범죄(0.3%p), 재산범죄(0.1%p), 교통범죄(1.1%p) 모두 소폭 증가했으나, 증감폭이 작아 큰 변화가 없음

[그림 Ⅲ-6] 주요 범죄군 분기별 아동피해자 비율
(단위 : %)



2) 전년 동분기 대비 동향

●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 모두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서만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고, 강력범죄와 교통범죄는 감소. 범죄유형별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폭력범죄가 전년 동분기 대비 4.7%, 재산범죄가 11.5% 증가한 반면, 강력범죄는 7.1%, 교통범죄는 10.0% 감소
- 2017년 2분기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폭력범죄가 전년 동분기 대비 17.7%, 재산범죄가 6.8% 증가한 반면, 강력범죄는 5.2%, 교통범죄는 4.3% 감소. 특히 폭력범죄 증가가 두드러짐
- 아동피해자 비율은 증감률이 1% 미만으로 뚜렷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

● 강력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7.1%와 5.2% 감소. 강력범죄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22건으로 전년 동분기 239건에 비하여 7.1%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310건으로 전년 동분기 327건에 비하여 5.2% 감소
- 2017년 1분기 강력범죄 피해자 중 아동 비율은 3.4%로 전년 동분기 4.0%에 비하여 0.5%p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3.8%로 전년 동분기 4.3%에 비하여 0.5%p 감소

● 폭력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4.7%와 17.7% 증가. 폭력범죄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24건으로 전년 동분기 214건에 비하여 4.7%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372건으로 전년 동분기 316건에 비하여 17.7% 증가
- 2017년 1분기 폭력범죄 피해자 중 아동 비율은 0.5%로 전년 동분기 0.4%에 비하여 큰 변동 없음. 2분기 아동피해자 비율은 0.7%로 전년 동분기 0.6%에 비하여 0.2%p 증가

● 재산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11.5%와 6.8% 증가. 재산범죄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13건으로 전년 동분기 191건에 비하여 11.5% 증가하였고, 2분기에는 315건으로 전년 동분기 295건에 비하여 6.8% 증가
- 2017년 1분기 재산범죄 피해자 중 아동 비율은 0.2%로 전년 동분기 0.2%에서 변동 없음. 2분기 아동피해자 비율은 0.3%로 전년 동분기 0.2%에 비하여 큰 변동 없음

● 교통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2017년 1, 2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10.0%와 4.3% 감소. 교통범죄 아동피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는 1,208건으로 전년 동분기 1,342건에 비하여 10.0% 감소하였고, 2분기에는 2,003건으로 전년 동분기 2,092건에 비하여 4.3% 감소
- 2017년 1분기 교통범죄 피해자 중 아동 비율은 1.6%로 전년 동분기 1.6%에서 큰 변화가 없음. 2분기 아동피해자 비율은 2.7%로 전년 동분기 2.5%에 비하여 0.2%p 증가

2017년 상반기 | Vol. 03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Quarterly Crime Trend Report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인 쇄 : 호정씨앤피(02-2277-4718)

ISBN 979-11-87160-80-9 93330